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 표현
교육 방안 연구

-주제 및 기능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漢城大學校 大學院

韓國語文學科

韓國語教育專攻

형 재 연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李恩羲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 표현

교육 방안 연구

-주제 및 기능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Methods of Teaching for Korean Idiomatic
Expressions as a Foreign Language

-Centered on topic and connectivity with function-

2010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韓國語文學科

韓國語教育專攻

형 재 연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李恩羲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 표현

교육 방안 연구

-주제 및 기능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Methods of Teaching for Korean Idiomatic

Expressions as a Foreign Language

-Centered on topic and connectivity with function-

위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제출함

2010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韓國語文學科

韓國語教育專攻

형 재 연

형재연의 文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10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목 차

제 1 장 서론	1
----------------	---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	---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	---

제 3 절 선행연구	5
------------------	---

제 2 장 이론적 배경	8
--------------------	---

제 1 절 관용 표현의 개념	8
-----------------------	---

제 2 절 관용 표현의 범위 및 유형	14
----------------------------	----

제 3 절 관용 표현과 타 범주의 경계	19
-----------------------------	----

제 3 장 한국어 교재에서의 관용 표현 분석	24
--------------------------------	----

제 1 절 한국어 교재 분석 체제	24
--------------------------	----

1. 분석 대상 교재 선정	24
----------------------	----

2. 교재 분석 기준	25
-------------------	----

제 2 절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관용 표현	28
-------------------------------	----

1. 서울대학교 『한국어』	28
----------------------	----

2. 이화여자대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	31
-------------------------------	----

3. 경희대학교 『한국어』	36
----------------------	----

4. 연세대학교 『연세 한국어』	39
-------------------------	----

5. 성균관대학교 『배우기 쉬운 한국어』	41
------------------------------	----

제 3 절 한국어 교재의 관용 표현 분석 결과 및 문제점	45
---------------------------------------	----

제 4 장	관용 표현의 교육 구성 방안	49
제 1 절	관용 표현의 단계화	49
1.	교육용 관용 표현 선정	49
2.	단계별 관용 표현 목록	54
제 2 절	주제 및 기능과 관용 표현의 연계 구성	59
1.	주제 및 기능과 관용 표현의 연계 기준	61
2.	주제 및 기능과 관용 표현의 연계 목록	63
제 3 절	관용 표현의 단위 구성	70
1.	관용 표현의 교재 모형 설계	71
2.	관용 표현의 교수·학습 모형	80
제 5 장	결 론	85
【참고문헌】		87
【부 록】		93
ABSTRACT		102

【 표 목 차 】

[표 1] 관용문과 속담문의 유형 분류	20
[표 2] 관용 표현과 연어와의 구분	23
[표 3] 분석 대상 한국어 교재	24
[표 4] 관용 표현의 교재 분석 기준	25
[표 5] 서울대학교 『한국어』 관용 표현 목록	28
[표 6]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수요목	29
[표 7] 이화여자대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 관용 표현 목록	32
[표 8] 이화여자대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 초급 교수요목	32
[표 9] 이화여자대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 중급 교수요목	34
[표 10] 경희대학교 『한국어』 관용 표현 목록	36
[표 11] 경희대학교 『한국어』 교수요목	37
[표 12] 연세대학교 『연세 한국어』 관용 표현 목록	39
[표 13] 성균관대학교 『배우기 쉬운 한국어』 관용 표현 목록	42
[표 14] 성균관대학교 『배우기 쉬운 한국어』 교수요목	43
[표 15] 한국어 교재의 관용 표현 분석 결과	45
[표 16] 국제교육진흥원 『속담100 관용어100』	51
[표 17] 김선정 외(2006) 관용 표현 목록	51
[표 18] 문금현(1998) 학습 단계별 관용 표현의 목록	52
[표 19] 5개 교재에서 2회 이상 제시된 관용 표현	53
[표 20] 의미의 투명도 및 사용 빈도	56
[표 21] 학습 단계별 관용 표현 목록	59
[표 22] 한국어능력시험 등급 기준표	60
[표 23] 초급 단계 주제 및 기능과 관용 표현	63
[표 24] 중급 단계 주제 및 기능과 관용 표현	66
[표 25] 고급 단계 주제 및 기능과 관용 표현	66
[표 26] 한국어 교수·학습지도안	80

【 그림 목 차 】

<그림 1> 관용 표현의 의미적 생성 과정	13
<그림 2> 연어와 관용 표현의 결합 관계	23
<그림 3> 서울대학교 관용 표현 제시의 예	30
<그림 4> 이화여자대학교 관용 표현 제시의 예	35
<그림 5> 경희대학교 관용 표현 제시의 예	38
<그림 6> 연세대학교 관용 표현 제시의 예	41
<그림 7> 성균관대학교 관용 표현 제시의 예	44
<그림 8> 관용 표현 추출 방법	50
<그림 9> 관용 표현의 등급화 기준	55
<그림 10> 관용 표현의 급수별 분포 양상	58
<그림 11> 관용 표현의 단위 구성	7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한국어 교재에 나타나는 관용 표현을 분석하고, 단원의 주제 및 기능이 관용 표현과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용 표현 교육 모형 설계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용 표현은 한 나라의 언어활동으로서 원어민 화자들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관용 표현은 각 나라, 민족 간의 역사와 문화, 지리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심리 특성과 민족의 생활 습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외국인들의 경우는 이러한 제반 현상을 알지 못하면 관용 표현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관용 표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원어민과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글자 그대로의 의미와 비유적 의미가 다르다는 관용 표현의 특성 때문에 관용 표현을 학습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있어서 한국어 학습의 일차적인 목표는 유창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에 있다. 유창한 의사소통은 정확하고 효과적인 언어 사용을 바탕으로 한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의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본적인 관용 표현들을 이해하고 적절한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관용 표현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한국어 교재에서는 관용 표현에 대한 비중이 크지 않다. 또한 그 구성이 체계적이지 않아 효과적인 관용 표현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교수요목에 관용 표현을 소개하여 다루고 있으나 단원의 주제, 기능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문맥 및 상황에 알맞은 예시를 들어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자는 본문에 제시된 관용 표현의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 설령 그 의미를 이해한다고 해도 관용 표현이 가진 제3의 의미만을 이해하는 선에서 끝나고 말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관용 표현이 가진 비유적 의미만을 이해하는 선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용 표현이 적용되는 유의미한 담화 맥락과도 연결 지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 과에 관용 표현이 집중적으로 제시되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 단순히 관용 표현을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렇게 관용 표현만을 따로 떼어서 가르쳐서는 아무 의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과의 주제와 기능의 밀접한 연관성을 기반으로 관용 표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교육해야 한다. 즉 주제에 맞는 예문을 중심으로 관용 표현을 가르치고 학습자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휘 교육 영역, 문법 교육 영역 등에서는 단원과의 연계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어휘 교육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면 강현화(2004)¹⁾는 각 단원에 제시되는 어휘들은 해당 단원의 주제나 기능과 연관되며 등급별로도 체계적인 연관 관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문법 영역에서의 김제열(2007:23-27)²⁾은 고급 한국어 문법 교수요목의 개발 방안 중의 하나로 기능적 언어 교수의 관점에서 고급의 학습자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고려하여 문법 교수요목을 개발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고급 학습자가 토론을 수행해야 한다면 토론하기에 상응하는 문법 교수요목을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 기능의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안경화(2007)³⁾는 문법 교육은 학습 목표와 학습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문법 교육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연계되어 의사소통적이며 유의미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문법 교육이 학습 주제나 언어 기술 활동과 연계되어 있을 때 문법 지식이 강화되어 언어 사용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위와 같이 다른 영역에서는 단원과의 연계 방안이 논의 되고 있다. 그러나 관용 표현에 관해서는 단원과의 연계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 않다.

또한 영어 교육에서의 관용 표현 교육을 살펴보면, 상황과 주제를 중심

1) 강현화(2004), 「한국어 회화에 나타난 어휘 분석」, 『비교문화연구』 8집,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 김제열(2007), 「고급한국어 문법 교수요목의 개발 방안」,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 안경화(2007), 『한국어 교육의 연구』, 한국문화사, p.347

으로 Idiom을 분류하여 제시한 시도를 찾아 볼 수 있다. 은행에서 쓰이는 말이나, 사업상 주고받는 말, 건강에 관련되는 말, 휴일과 여행 때 필요한 말, 자동차, 전화 등과 관련된 말들을 분류하였다.(Seidl/McMordie, Ibid 참조, 재인용)⁴⁾

이와 같이 영어 교육에서는 단원과 관용 표현을 연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도 관용 표현에 대한 단원의 연계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 단원의 주제 및 기능과 어울리는 관용 표현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단원이 구성되면 학습자는 관용 표현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담화 내에서 추론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습자들이 관용 표현의 의미 관계를 통해 다양한 맥락에서 관용 표현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단원의 주제 및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관용 표현 교육 모형을 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중심이 되는 교수·학습의 매개체인 교재를 분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재에서 관용 표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교재가 추구하는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관용 표현의 교수·학습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제공하는지를 분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 교재는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교재이다. ‘초급, 중급, 고급’의 모든 수준의 한국어 교재 총 27권이 해당되고, ‘본문, 연습, 활동’ 모든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 관용 표현을 분석하도록 한다.

또한 교재의 각 단원에 제시되어 있는 주제 및 기능과 관용 표현의 제시 양상을 고찰하도록 한다. 학습자가 실제적인 언어상황에서 관용 표현을 사용하여 그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교재가 구성되었는

4) Seidl/McMordie(1978), 『English Idioms and How to Use Them』, Oxford Univ. Publishing Co., N.Y

지 살펴보고, 단원의 전체 체계 구성과 세부 구성 요소들을 유기적 관점에서 분석하도록 하겠다.⁵⁾ 분석 결과는 한국어 교재에서의 관용 표현 교육 모형 구성 설계의 바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기존의 관용 표현에 대한 연구결과와 논의들을 정리하여 제시할 것이다.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관용 표현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관용 표현의 명칭과 사전적 정의와 학문적 정의를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관용 표현의 범위 및 유형을 비교하고, 본 연구에서 다룰 관용 표현의 범주를 제시하도록 한다. 2장 3절에서는 관용 표현의 범주와 경계에 있는 연어와 속담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관용 표현의 범주를 설정할 것이다.

3장에서는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난 관용 표현에 대해 분석하도록 한다. 분석 대상 교재는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로 총 5개 기관의 27권이다. 교재의 분석 기준은 교재의 외적인 구성과 교재 내적인 구성으로 구분하고, 내적인 구성에 비중을 실어 분석하도록 한다. 또한 관용 표현이 제시된 단원에서의 주제와 기능의 연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교재의 전체 구성을 살펴볼 수 있는 교수요목을 중심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재에서 급수별 관용 표현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4장에서는 현행 교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설계하도록 한다. 초급, 중급, 고급 단계의 관용 표현을 배치하기 위한 체계적인 목록을 구성하고 급수별 주제 및 기능과 어울리는 관용 표현을 연결하도록 한다. 그리고 교수요목의 모형과 긴밀하게 연결된 단원 구성 모형 설계 방안과 실제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한국어 교재에서의 관용 표현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제 및 기능과 관용 표현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교육

5) 김정은(2005), 「단원의 구성과 전체적 유기성 관점에서의 한국어 교재 분석」,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2집, 한국외국어교육학회

방안의 실재를 제언한 후에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

제 3 절 선행연구

관용 표현에 대한 논의는 국어 교육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 관용 표현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관용 표현에 대한 연구로는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관용 표현의 교육 방안에 관한 논의와 일본인, 중국인 등의 특정 언어권 학습자를 위한 수준별 관용 표현 교육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관용 표현의 교육과 관련된 논문으로는 유덕자(1997), 문금현(1998), 전해영(2001), 조현용(2003), 송혜원(2005), 김현진(2006), 최혜령(2007), 신혜인(2010)이 있다.

유덕자(1997)는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관용 표현의 목록을 분석하고 유형별 분류를 하였다. 교육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문화적 배경 설명을 통한 교육, 문맥이나 상황을 통한 교육, 의미의 결합 관계를 통한 교육’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교육 방법에 대한 제시는 관용 표현 교육에 의의가 있으나 단계별 목록 설정을 하지 않고 교수방법만 제시되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문금현(1998)은 한국어 교재에서 관용 표현의 선정기준과 목록 제시 방법 등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에서의 관용 표현 교육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관용 표현을 학습 단계별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전해영(2001)은 한국어교육에서 관용 표현의 효과적인 교수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학습 단계별로 난이도를 조정하고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3단계 교육 방안을 설정하였다. 3단계 교육 방안은 Seal.B(1991:296-311)의 이론에 따라 ‘의미 전달 단계, 확인 연습 단계, 통합 활용 단계’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관용 표현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관

용 표현 교육방안 제시에 있어서 ‘의미 전달 단계나 확인 연습’ 단계에 그쳤으나, 전해영(2001)은 ‘통합 활용 단계’로 이르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조현용(2003)은 비언어적 행위와 관련한 관용 표현 교육에 대해 제시하였다. 한국인의 행위를 이해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비언어적 행위와 관련된 관용 표현을 교육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송혜원(2005)은 급별 관용 표현 목록을 구성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용 표현의 투명도와 사용 빈도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종래의 연구와의 차별성이 없으며 설문조사에 제시된 관용 표현 목록의 범위가 좁게 한정되어 있다. 또한 관용 표현의 교육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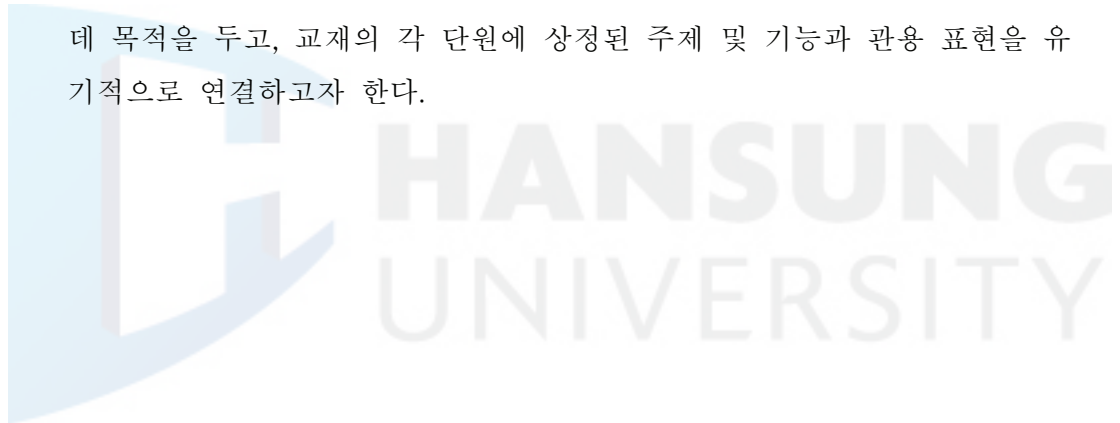
최혜령(2007)에서는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관용 표현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통해서 관용 표현의 목록과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도 방안으로는 ‘문맥 유추를 통한 지도 방안,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지도 방안, 놀이 활동을 통한 지도 방안’ 등 이다. 그러나 이는 중급, 고급 학습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관용 표현 교육 방안으로 초급 학습자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신혜인(2010)은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관용 표현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중국어와 유사한 관용 표현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신혜인(2010)에서는 김현진(2006)에서와 같이 교재에서의 관용 표현을 독립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관용 표현이 다른 항목과 함께 섞여 제시되면 학습자 및 교사 모두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고, 이화여자대학교의 『말이 트이는 한국어』와 같이 홀수 과마다 배치를 하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하였다.

그러나 교재에서 관용 표현을 독립적으로 제시한다면 관용 표현이 수업 시간에 분리되어 교육될 가능성이 있다. 언어 기술 활동과 연계되어 학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용 표현은 단원에서 다른 요소와 함께 연계성을 갖고 구성되어야 한다. 즉 관용 표현이

본문 안에 자연스럽게 제시가 되고, 연습 단계에서는 관용 표현이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활용단계에서는 연습단계에서 다룬 관용 표현이 연계될 수 있는 의사소통 중심의 다양한 활용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위의 선행연구와 같이 현재까지 관용 표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교육 방안 및 관용 표현 제시 방법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연구의 양에 비해 그 내용마다 차별성이나 다양성이 없었다. 또한 교재에서 관용 표현을 단원과 분리하여 가르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실제 단원 모형을 구체적으로 구성한 사례가 많지 않다. 따라서 한국어 교재에서 관용 표현의 구체적인 단원 교육 모형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고는 관용 표현 교육을 위한 실제 단원 구성 모형을 설계하는데 목적을 두고, 교재의 각 단원에 상정된 주제 및 기능과 관용 표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자 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관용 표현의 개념

관용 표현에 관한 연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자들이 사용하는 관용 표현의 용어와 기준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 관용 표현은 ‘숙어’, ‘관용구’, ‘이디엄’, ‘성어’, ‘관용어구’, ‘익힘말’, ‘관용어’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용 표현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가장 큰 세력을 확보했던 용어는 ‘관용어’이다.⁶⁾ 그러나 문금현(1999)에 따르면 ‘관용어’는 표면상으로는 구(句)나 문장으로 표현되더라도 의미 단위로는 하나의 단어와 대등하다는 의미 특성에 초점을 맞춘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숙어’나 ‘관용어’는 어상(語狀)인 것만을 지칭하고, 구형(句形)인 것은 성구(成句)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용어는 단어 차원으로 관용 표현을 제한하며, 의미 단위가 더 큰 경우의 예들을 처리하기 혼란스럽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다.⁷⁾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이론을 받아들여 문장 형태까지 포괄하는 개념으

6) 관용 표현에 대한 다양한 명칭을 시대적 논의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용어의 용어	시대별 논의
관용어	김종택(1971), 이영희(1982), 박영순(1985), 박진수(1986) 홍미량(1989), 최경봉(1992), 김진해(1995), 오제운(1998) 고광주(2000), 황정아(2006)
관용구	노수련(1936), 김민수(1964)
숙어	김문창(1974), 심재기(1986), 안경화(1987), 강현화(1988)
익힘말	황희영(1977)
익은말	윤소희(1986), 김혜숙(1993)
관용어구	김규선(1978)
관용 표현	강위규(1990), 문금현(1996), 박진호(2002)

7) 문금현(1999),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國語學會, p.28

로 ‘관용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본 절에서는 관용 표현의 명칭과 관용 표현의 기본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적 정의와 학문적 정의를 검토해 보도록 한다.

1. 관용 표현의 사전적 정의

‘관용 표현’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 사전에 등재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

㉠ 표준국어대사전

관용-구 (慣用句) 「명사」 『언어』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단어들의 의미만으로는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없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구(語句). ‘밭이 넓다’는 ‘사교적이어서 아는 사람이 많다.’를 뜻하는 것 따위이다. ≡관용어 「2」 · 성어02(成語) 「3」 · 속어(熟語) 「2」 · 익은말 · 익은이은말.

관용-어 (慣用語) 「명사」

「1」 습관적으로 쓰는 말.

『 젊은 총대는 억지로 위엄을 보이느라고 원상회복이니 명령이니 하는 관용어를 내세우고 기세가 등등하여 가 버렸다. ≪이북명, 땀싸리≫ 「2」 『언어』 =관용구.

㉡ 금성관 국어대사전

관용-구 (慣用句)

『 언』 관용적으로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특정한 뜻을 생성한 어구(語句). 흔히, 비문법적이거나 문법적이더라도 구성 요소의 결합만으로 전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등이 이에 해당함. 귀가 먹다, 속이 타다 따위, 관용어.

관용-어 (慣用語)

『 언』 ① 습관상으로 쓰는 말. 익은 말. ② =관용구

8)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상)』, 두산동아
김민수의 3(1992), 『금성관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이희승 편저(1994), 『국어 대사전』, 민중서림
신기철, 신용철 편저(1992), 『새 우리말 큰사전(상)』, 삼성출판사

㉔ 국어 대사전

관용-어 (慣用語)

㉔ ① 일반적으로 습관이 되어 사용되고 있는 말.

② [언] 문법상 논리적으로 맞지 아니하나, 다년간 관용이 되어 널리 쓰이는 말. 보통, 둘 이상의 단어가 으레 붙어서 쓰이는 것 또는 결합되어서 전체가 독특한 뜻을 나타내는 표현 등을 이룸. ‘-더라손 치더라도’, ‘천만 뜻밖’ · ‘귀가 먹다’ 따위. 이디엄(idiom). 숙어(熟語) · 익은말.

㉕ 새 우리말 큰 사전

관 : 용-구(-句)[-꾸]

㉕ [언] 관용어로 된 도막 말.

관 : 용어(-語)

㉕ [언] ① 일반적으로 습관이 되어 사용되고 있는 말.

② 문법에 맞지는 않으나, 다년간 관습적으로 널리 쓰이는 말. 곧 ‘-더라 손치더라도’ · ‘천만 뜻밖’ 따위.

우리나라의 사전상에 규정된 대부분의 관용적 표현에 관한 용어는, ‘idiom’의 역어가 기전이 되어 만들어졌음을 감안할 때 그 ‘idiom’의 사전적 정의를 살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⁹⁾

㉖ Webster's New Collegiate Dictionary(1973:568 김혜숙 재인용)

‘idiom’은 언어의 개별적 특성이다.

1 a: 어느 한 민족, 지방, 지역 사회, 어느 계층의 특별한 언어: 방언

b: 한 언어의, 고유의 통사적, 문법적, 또는 구조적인 형태

2 문법적으로나 또는 각 구성 요소의 결합만으로 파생될 수 없는

의미를 가지는 면에서 특별한 언어 용법으로 된 표현

3 한 개인, 한 시기나 사조 또는 매체나 도구 ((예)모던 재즈)의

특징을 지닌 예술적 표현 형태

9) 김혜숙(1992), 「익은말의 용어 및 개념 규정」, 『東國語文論集』 5집, 동국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pp.67-69

‘idiom’은 문법적 구조가 정상 언어표현과 다르며, 구성 요소 각각의 의미 결합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표현을 뜻한다.

㉞ Dictionnaire de la Langue Francaise(1980:957)

“한 개별 언어의 고유 특성. 특수한 의미를 만들어 내는 형태 및 한 지역 사회의 표현 방법의 총체” 라고 정의하고 있다.

㉞ Le Langage(1973:187)

“한 지역 사회의 언어 활동을 보여주기 위해 쓰이는 용어. 종종 한 개별 언어. 특수 지역의 지방어. 속어(jargon)eh ‘idiom’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특수 언어로서 정상 언어와는 다른 고유의 방법을 가진다.”

㉞ Dictionary of Language and Linguistics(1976:107)

a: 단어 개개의 의미를 합한 것과 항상 같은 의미를 지니지 않으며 문자 그대로 번역이 불가능한, 특별한 의미를 지닌 단어군

b: 어떤 문맥에서 어떤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언어적 · 비언어적 관련을 보이기 위해 어떤 언어학자에 의해 사용되는 좀 더 기술적 의미에서의 용어

지금까지 살펴 본 사전적 정의들은 ‘idiom’에 대한 공통 특성으로 특수성과 고유성을 들고 있다. ‘idiom’은 어휘 개개의 결합이 아닌 제3의 새로운 의미가 나타난다는 특성이라는 점에 초점을 둘 수 있다.¹⁰⁾

이상에서 ‘idiom’을 번역하여 차용한 가장 일반적인 역어인 ‘관용어, 관용 표현’의 사전상의 의미까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idiom’에 대한 한국어 교육에서의 명칭이나 개념, 특징은 아직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10) 김혜숙(1992), 「익은말의 용어 및 개념 규정」, 『東國語文論集』 5집, 동국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p.69

2. 관용 표현의 학문적 정의

관용 표현의 개념과 기본적인 특성은 추상적이라는 면에서 논의마다 편차가 있다. 관용 표현의 기본적인 특징을 논의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박영순(1985), 이상억(1993), 유덕자(1997), 오제운(1998), 민현식(2003)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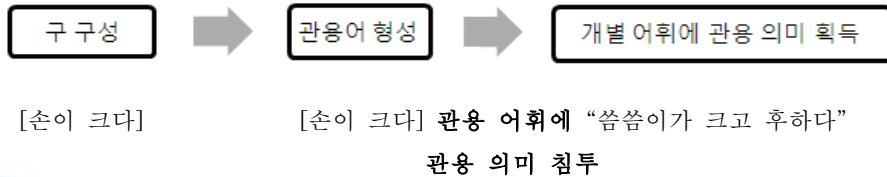
박영순(1985)은 관용어란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결합되어 구나 문장을 이루는 어휘군으로서 개개 단어의 의미 결합이 아닌 제3의 의미로 고정되어 화석화된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구조적으로는 두 단어 이상이 결합된 복수구조이지만 의미론적으로는 단일 의미를 가지며, 개개 단어의 의미 결합이 아닌 제3의 의미를 가지는 특수 언어군으로서 어린이들이나 외국인들이 도달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언어표현이라고 하였다. 이상억(1993)에서는 “둘 이상의 단어 결합인 일정한 구의 형태가 통사적으로 굳어진 채 사용되고, 의미상 그 결합 요소들 각개 의미의 단순한 합이 아닌 제3의 의미를 지니게 된 특수 표현들”이라고 규정하였다.

오제운(1998)은 관용어란 그 나라의 언중이 관습적으로 사용하여 무의식적으로 굳어진 말로서 두 이상의 단어가 긴밀히 결합하여 일반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화석형으로 문자적 의미와는 다른 제3의 의미를 나타내는 상황효과 표현의 어구나 문장을 지칭한다고 하였다. 유덕자(1997)에서는 관용 표현이란 때로는 관용적으로 쓰이는 그 나라의 독특한 표현으로서 통사론적으로는 두 개 이상의 의미소가 결합한 구나 절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의미론적으로는 기본 어휘나 문법으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제3의 단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민현식(2003)에 따르면 그동안 관용 표현에 대해서는 용어, 범위, 분류에 대한 개념 정의가 다양하여 이렇다 할 정설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원래 사전적으로 ‘慣用’이란 말은 ‘습관적으로 늘 씀’ 정도의 뜻을 풀이를 하고 있다. ‘관용’의 뜻 안에 내포된 ‘습관’이란 말은 시간성에서도 반복성, 지속성을 내포하는 말이다. 따라서 ‘관용 표현’이란 ‘일정 시간 반복적, 지속적으로 언어공동체에서 통용되는 표현’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관용 표현’의 정의는 논자들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관용 표현의 개념에 있어서 대부분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다. 즉 관용 표현의 구성 요소가 단어와 단어의 기본 의미가 아닌 제3의 의미를 획득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이를 관용 표현의 의미적 생성 과정을 도식으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관용 표현의 의미적 생성 과정



<그림 1>과 같이 ‘손’과 ‘크다’의 단어의 결합으로 구가 구성된다. ‘손이 크다’의 1차적인 의미는 손의 크기가 큰 것을 의미한다. 1차적인 의미의 관용 어휘에 관용 의미가 침투하게 되면 개별 어휘에 대한 관용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이 때 ‘손이 크다’는 ‘쌈씨가 크고 후하다’라는 제3의 관용적 의미인 것이다.

지금까지 관용 표현에 대한 사전적 정의와 학문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관용 표현의 개념과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관용 표현은 한 나라의 언어활동으로서 관습적 용어이다.’

- Ⓐ 조합된 단어의 합으로는 전체 의미를 알 수 없고 제3의 의미를 갖는다.
- Ⓑ 관용 표현은 형태가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된 단위여야 한다.
- Ⓒ 통사적으로 굳어진 표현이어야 한다.

Ⓐ는 의미적 조건이며, Ⓑ는 형태적 조건에 해당된다. Ⓒ는 통사적인

측면에서 고려한 특성이다.

위의 관용 표현의 개념과 특성을 토대로 다음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룰 관용 표현의 범위 및 유형을 살펴볼 것이다.

제 2 절 관용 표현의 범위 및 유형

1. 관용 표현의 범위

관용 표현에 대한 범위를 한정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연구 관점이 있다. 첫 번째는 관용 표현을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는 전체 구성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고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구성’으로 한정하여 보는 견해가 있다. 두 번째는 관용 표현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상정하여, 첫 번째 견해를 포함한 숙어와 연어(단어 결합 형식), 비유표현, 속담 등의 형식까지 관용 표현으로 포괄하는 견해가 있다.

먼저 관용표현을 한정하여 보는 연구를 살펴보면, 김문창(1974)은 관용어를 상위개념으로 하고 속담, 고사성어, 격언, 길조어, 은어 그리고 숙어를 하위 분류하였다. 그리고 숙어는 두 개 이상으로 구성된 하나의 구로서 문법, 의미, 통사 등 관점에서 볼 때 특수한 구조를 가지며 각 구성 요소간의 결합도가 특히 긴밀하여 일반적으로 분리불가능한 일종의 화석형이라고 하였다.

홍미량(1990)은 관용 표현을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였다. 광의의 관용 표현은 대중성과 통용성을 지니고 관용적으로 쓰이는 모든 표현, 즉 다의어, 융합복합어, 속담, 은어, 고사성어, 수수께끼, 비유어, 숙어까지 포함시키고 있으며, 협의의 관용 표현은 구성 요소의 의미가 전이되고 화석화되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융합복합어의 일부와 구절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였다.

관용 표현을 포괄적으로 보는 견해로는 심재기(1986), 민현식(2003)이 있다. 심재기(1986)는 어휘적 차원의 관용 표현에는 숙어, 은어, 비속어, 비유어, 금기어 등이 있고, 문장차원의 관용 표현에는 속담, 고사성어, 금기어,

길흉담, 격언, 금언, 잠언, 수수께끼, 인사말로 나누었다. 이에 따르면 속어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통합하여 하나의 단어와 동일한 통시적 화용론적 기능을 수행하는 일군의 결합어휘를 지칭한다고 하였다.

민현식(2003)에서의 관용 표현 분류는 크게 두 갈래로 분류하였다. 그 분류는 전래 관용 표현과 유행 관용 표현으로 나누었다. 전자는 어떤 언어 현상을 여러 시대에 걸쳐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통시적 관용 표현으로 고사성어, 관용어구, 인간관계 표현, 속담을 분류하였다. 그 하위 분류로는 의례어와 욕설 등이 포함된다. 후자는 일정 시점에서 정지된 시점을 기술한 공시적 관용 표현으로 구분하였다. 유행 관용 표현으로는 유행성어, 유행어구, 인간관계 표현, 유행 속담, 유행 수수께끼, 유행담으로 분류하였다.

문금현(1999)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관용 표현’을 설정하여 이를 ‘광의의 관용 표현’과 ‘협의의 관용 표현’으로 나누었는데, ‘습관적으로 굳어져서 단순히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이해되지 않는 표현’을 포괄적으로 가리켜서 ‘광의의 관용 표현’이라 하였고, 그 중에서도 ‘언어 내적인 조건’과 ‘언어 외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것들을 ‘협의의 관용 표현’이라고 하였다.

하랄트 부르거(권경일2008:53재인용)에서도 관용구를 광의의 관용구와 협의의 관용구로 구분하여 보고 있는데, 그는 관용구(성구소)의 특성으로 다어휘성과 고정성, 관용성을 들고 다어휘성과 고정성을 가지는 것을 ‘광의의 관용구’라 하고 여기에 관용성까지 가지는 것을 ‘협의의 관용구’라고 하였다.¹¹⁾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용 표현의 범위는 광의의 관용 표현과 협의의 관용 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범위는 협의의 관용 표현을 중심으로 다루기로 한다. 이는 광의의 관용 표현 중 금기어, 격언, 수수께끼, 인사말과 유행어 등을 다루기에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협의의 관용 표현 범주를 관용어, 구, 절, 문으로 분류한 문금현(1999)의 분류 체계의 입장을 취한다. 이는 언어 내적인 조건과 언어 외적인 조건을 충족한다는 점에서 본고의 취지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언어 내적인 조건은 앞 절에서

11) 권경일(2008), 「한국어 관용구의 개념과 범위」, 『교육연구』 16, 한남대학교 교육연구소, p.53

제시한 의미적, 형태적 조건과 통사적인 측면의 조건을 말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는 협의의 관용 표현은 다음절에 제시될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분류된 관용어, 관용구, 관용절, 관용문을 포함한다.

2. 관용 표현의 유형 분류

관용 표현의 유형의 분류는 형태, 통사, 의미, 어원, 위상, 관용성의 정도, 수사적 기교 등과 같은 여러 기준에 의해 분류될 수 있다. 문금현(1999:54) 본고에서는 협의의 관용 표현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관용 표현의 형식적인 유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문금현(1999)에서는 관용 표현의 형식을 크게 형식적 차원과 의미적 차원으로 나누었다. 형식적인 차원이란, 구체적 화맥에서 사용되는 형식 단위를 기준으로 한 개념이 아니라, 사전의 등재형을 기준으로 한 개념이다.

구성 형식을 보면, 관용 표현은 관용어, 관용구, 관용절, 관용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용어’는 협의의 관용 표현을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서 나눈 것들 중 단어(單語)의 자격을 가진 부류이다. 여기에서는 순수 융합 합성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류들만 순수 관용어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 관용적 합성어

관용구적 합성어: 체언형; 들은풍월/ 억지춘향

용언형; 바가지값다/시치미 떼다

관용절적 합성어: 눈빠지게/ 뼈빠지게//애타다/ 기막히다

㉡ 의사합성어: 오리발/ 바가지

‘관용구’는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서 나눈 것들 중 구(句)의 자격을 가진 부류이다. 구절형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이 지닌 기능에 따라 체언형과 용언형, 수식언, 독립언형으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¹²⁾

㉠ 용언형 관용어

12) 우형식, 배도용(2009),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어휘의 이해』,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용언형은 후행하는 구성 요소가 동사 또는 형용사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형식의 관용어는 문장 안에서 용언과 같은 기능을 한다.

- (ㄱ) 낮이 두껍다, 마음이 무겁다, 비위가 상하다, 귀가 아프다
- (ㄴ) 금이 가다, 풀이 죽다, 등골이 빠지다, 애가 타다
- (ㄷ) 눈 밖에 나다, 근처도 못 가다, 눈에 들다, 간에 기별도 안 가다
- (ㄹ) 애를 먹다, 국수를 먹다, 귀를 기울이다, 낫을 가리다, 타월을 던지다
- (ㅁ) 큐피드의 화살을 맞다

㉔ 체언형 관용 표현

체언형의 관용 표현은 전체 구성체가 체언의 기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관련된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ㄱ) 개밥에 도토리, 개발의 편자, 남산골 샌님, 굵어 부스럼, 제 눈이 안경, 꿩 대신 닭, 아닌 밤중에 홍두깨
- (ㄴ) 고삐 풀린 망아지, 꿀 먹은 벙어리, 독안에 든 쥐, 물에 빠진 생쥐, 빗 좋은 개살구, 짝 잃은 원앙새, 귀 빠진 날
- (ㄷ) 누워 떡 먹기, 누운 소 타기,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늘의 별 따기, 소 귀에 경 읽기, 수박 겉 핥기, 식은 죽 먹기, 울며 겨자 먹기

위에서 (ㄱ)은 체언 또는 체언적 구실을 하는 것이 체언 앞에 오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두 구성 요소 사이의 유추적 관계에서 관용의 의미가 실현되고 있다. 이에 비해 (ㄴ)은 체언이 용언의 관형사형의 수식을 받는 형식이고 (ㄷ)은 용언의 명사형으로 나타난 것이다.

㉕ 기타

관용 표현에는 용언형과 체언형 외에 관용어나 부사어로 기능하는 것도 있는데, 주로 부사어에 해당하는 것이 많다.

- (ㄱ) 제발 덕분에, 눈 깜짝할 사이에
- (ㄴ) 너나 할 것 없이, 게 눈 감추듯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날개 돋친 듯이, 가뭄에 콩 나듯이

(ㄱ)은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첨가된 것이고, (ㄴ)은 용언의 부사적 용법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관용절’은 절(節)의 자격을 가진 부류이다. 박진수(1985)에 따르면 관용절은 주어와 술어를 갖춘 구조를 말하며, 관형형, 부사형, 서술형으로 나눈다. 그 중 서술절 관용절은 표현상 ‘주어+술어’의 구조를 이루는데, 전체 관용 표현의 35.6%를 차지할 만큼 아주 생산적이다.¹³⁾ 서술절 관용절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㉓ 서술절 관용절

(ㄱ) 가시가 돋치다 / 간덩이가 붓다 / 구미(口味)가 당기다 / 군침이 돌다

(ㄴ) 눈에 콩깍지가 썩이다 /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ㄷ) 입만 살았다

(ㄹ) 구멍이 뚫리다/ 귀에 못이 박히다/ 눈에 흙이 들어가다

(ㄱ) 은 N+이/가+V의 형태로 된 것이고, (ㄴ)은 $N_0+C_2 -\text{을}^0+C_1 D-\text{이}+V$, (ㄷ)은 $N+\text{만}+V$, (ㄹ)은 $N+\text{에}+N+\text{이}+V$ 의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다.

㉔ 부사형 관용절

(ㄱ) 꼬리가 빠지게 / 눈이 까맣게

(ㄴ)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ㄷ) 눈 코 뜰 새 없이 / 물 썰 틈(이) 없이

㉕ 관형형 관용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 옆드리면 코 닿을 데

‘관용문’은 문장(文章)의 자격을 가진 부류들이다. 관용문 자체가 주어와 술어를 독립적으로 갖추어 완전한 문장이 된다. 이는 단문과 복문으로 나눌 수 있다.

㉖ 단문

빈대도 낮짜이 있다 / 간이 콩알만 해지다 / 도둑이 제 발 저리다

㉗ 복문

긋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 꿩 먹고 알 먹는다 / 앓느니 죽지

13) 박진수(1985), 「국어 관용어 연구」, 경북대 석사 학위 논문, p.49

제 3 절 관용 표현과 타 범주의 경계

관용 표현의 범주를 뚜렷이 구분하여 설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간 관용 표현과 쉽게 혼동되어 모호하게 처리되어 왔던 속담, 연어는 서로 비교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다만, 금기어, 격언, 수수께끼, 인사말과 유행어 등은 그 형식과 의미에 있어서 관용 표현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본 절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관용 표현과의 가장 모호한 경계에 있는 속담과 연어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관용 표현과 속담과의 범주 경계

관용 표현을 광의의 의미로 본다면 매우 넓은 의미이다. 또한 한 나라의 언어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어 관용 표현의 범주에 포함을 시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호한 것들이 많다. 그 중 관용 표현과의 범위의 경계로 많이 논의되어 온 것 중 하나가 속담이다.

황정아(2006)¹⁴⁾에서 제시한 관용 표현과 속담을 혼동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모두 일반대중들에게 널리 쓰인다는 점이다. 또한 단순히 겉의 문장 결합에서 보면 그 실제적인 의미를 추측하기 어렵고 나름대로의 확장 의미나 비유적인 의미가 존재한다는 점이라고 하였다.

관용 표현과 속담을 서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대부분의 속담은 문장 구조가 관용 표현보다 좀 더 길고 대다수의 대칭 쌍문장 구조를 이룬다. 관용 표현은 속담문보다 짧으며 복합구의 형태를 가진 경우가 드물다.

둘째, 속담은 인용문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독립된 문장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니가 먼저 그랬잖아.”와 같이 인용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관용어는 대부분 인용문이나 독립된 문장의 형식이 아닌 문장 안에 포함된 문장 구조 내의 일부분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전혀 꼬리

14) 황정아(2006), 「한국어 관용어와 관용 표현의 관계」, 『한국언어문화학』 3,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p.282

를 남기지 않았습니다.”와 같이 문장 구조 속에서 나타난다.¹⁵⁾

셋째, 속담은 보통 문장 내에 일정한 이치가 존재한다. 이는 인생의 심오한 철학을 내포하여 다른 하나의 진상을 형용한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관용 표현은 단순히 다른 하나의 의미를 가리키고 제3의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 심오한 인생의 철학, 훈시, 경계 등의 의미는 내포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을 둘 수 있다고 하였다.

문금현(1999)에서는 속담문은 비유의 과정을 통한 의미 표현이라는 점에서 속담적 관용문과 같으나, 축자 의미와 관용 의미가 유연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속담적 관용문과 다르다고 하였다. 속담적 관용문은 단문인 경우 유연성을 찾기가 더 어렵고, 복문의 경우는 단문보다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속담으로 다루어졌던 것들 중 풍자성이나 교훈성을 가지지 않고 비유 의미만을 가진 문장들을 ‘순수 관용문’으로 처리하고, 풍자적 속담문에서 점차 풍자성이 희석된 것들을 ‘속담적 관용문’이라 하여 속담문과 구분했다. 관용문과 속담문의 차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 관용문과 속담문의 유형 분류

관용문	순수 관용문	발등에 불 떨어지다/ 별꼴이 반쪽이다/ 앓느니 죽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속담적 관용문	도둑이 제 발 저린다/ 빈대도 낮 짝이 있다/ 꿩 먹고 알 먹는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
속담문	풍자적 속담문	가재는 게 편이다/ 등잔 밑이 어둡다/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작은 고추가 맵다
	교훈적 속담문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수사적인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속담은 현실적인 표현이 대부분이지만, 순수 관용 표현들은 과장된 표현이 많다. 같은 [불가능]을 의미하더라도 속담은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표현하지만 관용 표현은 ‘하늘의 별 따기’로 표현한다. 속담문은 생성 유래가 어떤 고담을 통해서 선조들의 지혜와 교훈을 담은 것들이라는 점도 순수 관용 표현과 다르다.

15) 황정아(2006), 「한국어 관용어와 관용 표현의 관계」, 『한국언어문화학』 3,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p.283

임지룡(1992)은 관용 표현과 속담의 경계 분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관용 표현과 속담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모두 표현형식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속담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관용 표현과 구별된다. 첫째, 속담은 비유성, 풍자성, 교훈성이 강한 반면, 관용 표현은 그러한 특성이 약하거나 없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¹⁶⁾

ㄱ.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속담)

ㄴ. 오리발 내밀다. (관용어)

ㄷ. 그 사람이 이번에도 오리발을 내밀었다. (직설적 사용)

ㄱ은 속담이며, ㄴ은 관용어로서 ㄷ의 경우에서 보듯이 속담이 가졌던 본래의 비유와 풍자적 기능을 잃은 채 직설적으로 쓰이고 있다.

둘째, 속담은 그 구성 요소의 의미나 풍유적 지시(allegorical reference)를 이해함으로써 전체적인 의미를 추정할 수 있는 반면, 관용어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의미파악이 어렵다. (H.Jackson,1987:106 임지룡 재인용)

이와 같이 관용 표현과 속담은 둘 이상의 낱말이 모여서 만들어졌다는 점과 문화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앞선 연구의 결과를 살펴본 바와 같이 본고에서의 관용 표현과 속담의 차이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속담의 특징은 교훈성과 풍자성을 갖고 있다. 둘째, 속담은 문장에서 인용문의 형태나 독립적인 형태로 나타나 있다. 반면에 관용 표현은 문장 구조 속에 녹아 있다는 것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

16) 임지룡(1992),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2. 관용 표현과 언어의 범주 경계

관용 표현과 언어는 서로 형태와 통사적 제약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을 구분하기가 모호한 표현들이 있다. 본 장에서는 언어와 관용 표현의 모호한 경계에 있는 의미 표현들을 구분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Cruse(1986:40박만규 재인용)에게 있어 언어는 ‘습관적으로 공기하지만, 각 어휘 구성성분이 의미 구성성분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투명한 어휘 항목들의 연속체’를 말한다. 여기서 ‘습관적으로 공기함’은 결합의 선호(pref-erences)경향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관용 표현과 언어는 구성 어휘들 간의 엄격한 공기 제약(co-occurrence restrictions)과 공기 선호(co-occurrence preferences)의 대립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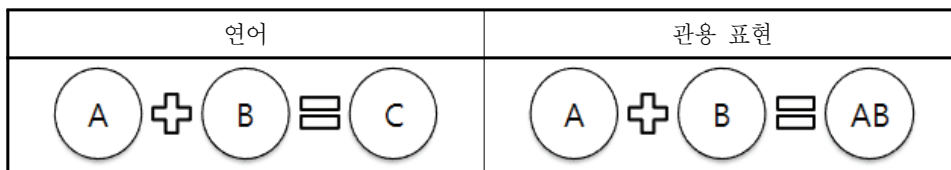
김진혜(1995)에서는 관용 표현은 의미적으로 새로운 어휘소를 형성하는 구성이다. 반면에 언어는 두 구성 사이의 통사적인 필수 공기 관계이다. 따라서 언어는 구성 요소의 의미합으로 전체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관용어와 언어는 각각 독립된 영역을 가진다. 즉 언어는 의미적, 통사적 언어는 기본 의미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문금현(2002)에서는 관용구절은 A와 B, 두 구성 요소가 결합하여 C라고 하는 관용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즉 두 구성 요소가 의미의 전이를 겪어 제3의 의미를 갖게 된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언어는 둘 이상의 단어가 축자의미를 지니면서 긴밀한 결합 관계를 형성하는 어군으로 출현, 빈도가 높고 심리적인 현저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하나의 문장에 공기하는 빈도가 높은 어휘의 결합으로서 느슨한 의미의 공기 관계를 의미하는 ‘언어’로 인식하였다. 박진호(2003)에서는 관용 표현은 구성 요소의 의미를 고려할 때 전체 언어 표현이 꼭 의미를 가져야 할 이유는 없지만 관습적으로 그런 의미를 나타낸 경우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사이의 연관이 관습성을 띠는 경우라고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반면에 언어(Collocation)은 어떤 의미를 표현할 때 특정 문맥에서는 특정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관습화된 경우라고 보고 있다.

문금현(2002)와 박진호(2003)의 논의를 종합하면, 관용 표현을 A와 B,

두 구성 요소가 결합하여 C라는 제3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연어는 특정 단어가 결합의 관습성을 갖는 것이다. 연어와 관용 표현의 결합 관계의 차이점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어와 관용 표현의 결합 관계



우형식, 배도용(2009)은 형태적으로 자유 결합은 구성 요소 사이의 통합과 분포가 비교적 자유로운 데 비해서 연어와 관용어는 고정되고 제약된다. 또한 의미적인 면에서는 자유 결합과 연어는 구성 요소들의 의미가 투명하게 실현되는 데 비해서 관용 표현은 그렇지 못하여 제3의 의미를 실현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구분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관용 표현과 연어와의 구분

구분	자유 결합	연어	관용어
통합의 고정성	-	+	+
분포의 제약성	-	+	+
의미의 불투명성	-	-	+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본고에서 관용 표현과 연어와의 범주 경계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용 표현은 연어보다 단어 사이의 더욱 긴밀한 공기 제약성을 갖는다.

둘째, 관용 표현은 제3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연어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셋째, ‘연어’를 구성 요소 중 한 어휘가 독립적 의미 단위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복합 표현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관용 표현과 연어의 경계를 두고 관용 표현의 범주를 구분하여 분석을 하도록 한다.

제 3 장 한국어 교재에서의 관용 표현 분석

제 1 절 한국어 교재 분석 체제

1. 분석 대상 교재 선정

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구성된 교재가 반드시 요구되기 마련이다. 더구나 한국어 교육은 교실 수업 위주로 되어 있고 주로 교재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의 실정으로 볼 때 한국어 교육에서의 교재는 학습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재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해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국내 대학기관에서 출판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교재에서 관용 표현의 제시방법과 관용 표현 교육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도록 한다.

교재는 일반적으로 좁게 말한다면 교육 과정에 따른 교육 내용을 가지적으로 제시한 것을 말한다. 주교재와 부교재로 나눌 수 있으며 주교재는 교과서를 가리키고 연습서, 참고서, 사전, 시청각 자료, 프로그램, 과제, 활동 등을 부교재 또는 보조 교재라 부를 수 있다.

본 연구는 정규 교육 과정 기관에서 사용되는 교재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교재는 총 5개 대학기관의 교재로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총 27권이다. 분석 대상 교재는 [표 3]을 참고한다.

[표 3] 분석 대상 한국어 교재

기관명	교재명	급수	권수
서울대학교	『한국어』	초급 - 고급	4권
이화여자대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	Beginning - advanced II	5권
경희대학교	『한국어』	초급 - 고급	6권
성균관대학교	『배우기 쉬운 한국어』	초급 - 고급	6권
연세대학교	『연세 한국어』	초급 - 고급	6권

[표 3]과 같이 분석 대상 한국어 교재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급에서 고급까지 모두 출판된 교재이다.

둘째, 기관에서 비교적 한국어 교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셋째, 2000년 이후에 출판된 교재이다.

위의 근거를 바탕으로 분석 대상 교재를 27권을 선정하였고, 초급, 중급, 고급의 단계에 따라 제시된 관용표현을 살펴본다.

2. 교재 분석 기준

위에서 선정한 한국어 교재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관용 표현에 대한 교재 분석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재 분석 기준은 황인교(2003)¹⁷⁾에서 제시한 모형을 참고하여 교재 외적인 구성과 교재 내적인 구성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본고에서는 황인교(2003)의 교재 분석 기준 틀을 설정하되 세부 분석 항목은 ‘관용 표현’에 초점을 두고 재설정하였다. 기준 분석 틀 중 교재 내적인 구성의 학습 평가와 피드백은 제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성할 교재 분석 기준은 [표 4]와 같다. 교재 외적인 구성¹⁸⁾의 분석은 교재의 일러두기와 교재 구성을 참고하여 분석한다. 교재 내적인 구성의 분석은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관용 표현을 중심으로 한다. 하위분류 기준으로 총 3개의 분석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크게 구성 체제, 학습 내용의 수준과 범위, 학습 활동 부분으로 분석 기준 항목을 구성하였다.

17) 황인교(2003)에 의하면 분석 항목 설정을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가. 교수 학습 상황: 현장, 학습자, 교사

나. 교재 외적인 구성: 모양 및 구입, 관련 구성물 저자 또는 기관 정보 유무

다. 교재 내적인 구성: 구성(전체, 단원), 학습 내용(주제, 문법, 어휘, 발음, 담화, 문화), 학습 활동(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학습 평가와 피드백

18) 본 연구에서는 관용 표현의 분석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며, 분석 틀 중 외적인 구성 중 교재의 값이나 기관 정보의 유무, 모양 등은 제외하기로 하고, 교재 내적인 구성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

19) 진대연(1999)에서는 교육부에서 공개한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기준의 교과기준을 원용해 한국어 교재의 분석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크게 5개로 구분하였는데, 내용의 선정, 내용의 조직, 내용의 수준과 범위, 구성 체제, 표현 및 표기로 나누었는데, 여기서 제시한 분석 틀은 교재 내적인 부분에 중심을 둔 분류이다. 『한국어 교재 분석의 기준: 연구와 적용』, 『國語教育學研究』 9, 국어교육학회

[표 4] 관용 표현의 교재 분석 기준

교재 외적인 구성	· 교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교수·학습 상황의 분석) · 교재의 관련 구성물은 무엇이 있는가?	
교재 내적인 구성	학습내용의 수준과 범위	· 교재에 제시된 관용 표현의 양은 적절한가? · 관용 표현의 초급, 중급, 고급별로 나타나는 양상은 어떠한가?
	구성 체제 ¹⁹⁾	· 교재 구성 방법은 어떠한가? (문법 및 표현, 학습 활동 등) · 관용 표현의 제시 방법은 어떠한가? · 단원의 주제 및 기능이 관용 표현과 연계되어 조직되었는가?
	학습 활동	· 관용 표현에 대한 학습활동은 다양한가? · 제시된 관용 표현의 학습활동 종류는 무엇이 있는가?

교재 외적인 구성은 교수·학습 상황의 분석과 교재의 관련 구성물에 대한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교수·학습 상황 분석에는 교재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항목이다. 이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한 분석으로써 일반 목적, 학문 목적, 특수 목적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학습 대상에 대한 분석도 포함한다. 둘째, 교재의 외적인 구성 중 교재의 관련 구성물의 종류에 대한 항목이다. 각 기관별 교재들은 CD와 같은 시청각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연습용 교재가 따로 출판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교재 내적인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하위분류 할 수 있다. 첫째, 학습내용의 수준과 범위이다. 관용 표현이 교재에서 제시된 관용 표현의 양이 적절한가에 대한 항목이다. 관용 표현의 분석 범위는 본문, 활동, 듣기지문, 예문 등 교재 전체이다. 이는 대부분의 교재에서 ‘관용 표현’이라고 제시하지 않았지만 빈번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재마다 관

용 표현의 제시방법이 다르고 교수요목에 관용 표현이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실제 관용 표현을 다루고 있는 부분까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에 본고에서의 교재 전체에 나타나는 관용 표현의 수를 파악한다. 그 다음으로 학습내용의 수준에 관한 항목으로 초급, 중급, 고급의 급수별로 제시된 관용 표현의 양상은 어떠한가에 관한 항목이다. 급수별 배치된 관용 표현의 분포를 파악하고, 교재별로 관용 표현의 목록을 비교한다.

둘째, 구성 체계에 관한 항목이다. 교재의 구성 방법이 어떠한가에 대한 항목으로 교재가 주제 및 상황, 기능, 문법 및 표현, 활동, 어휘 등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 검토한다.

그 다음으로는 관용 표현의 제시 방법이 어떠한가에 대한 항목이다. 교재의 구성 중 관용 표현을 주로 나타나는 부분을 분석한다. 또한 단원의 주제 및 기능이 관용 표현을 연계하여 조직되었는지 검토한다. 여기서는 교재의 교수요목을 참고하여 각 단원에서 제시한 관용 표현이 주제 및 기능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는가에 대해 검토한다.

셋째, 학습 활동에 관한 분석이다. 관용 표현에 대한 학습활동은 다양한가에 대한 항목으로 교재에서 관용 표현에 대한 학습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다. 그리고 제시된 관용 표현의 학습 활동이 있다면 그 종류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한다.

제 2 절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관용 표현

본 절에서는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관용 표현을 분석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1절의 교재 분석 틀을 기준으로 교재의 내적 외적 분석 구성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본 장에서는 5개 기관의 한국어 교재에서의 관용 표현을 중심으로 내적, 외적인 구성을 분석하기로 한다.

1. 서울대학교 『한국어』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발행된 『한국어』는 초급, 중급, 중상급, 고급의 네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1절에서 제시한 분석 기준 틀을 바탕으로 교재 외적인 구성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교재의 목적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려는 성인 학습자를 위해 개발하였으며, 총 10주간에 200시간의 정규과정을 대상으로 짜여있다. 교재의 구성물은 주교재와 Practice Book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5] 서울대학교 『한국어』 관용 표현 목록

급	관용 표현	빈도
1	-	0
2	마음에 들다 / 입에 맞다 / 한턱 내다 / 한잔 마시다	4
3	한턱 내다 / 하늘의 별 따기 / 손을 보다 / 눈이 높다 / 마음에 들다 / 발이 넓다 / 손발이 맞다 / 귀가 가렵다 / 기가 막히다 / 첫눈에 반하다 / 운이 좋다	11
4	우물 안의 개구리 / 하늘만큼 땅만큼 / 마음에 들다 / 바가지를 줍다 / 그림의 떡 / 비행기를 태우다 /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다 / 입이 가볍다 / 입이 무겁다 / 양다리 걸치다 / 바람을 맞다 / 제 눈에 안경이다 / 국수를 먹다 /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 깨가 쏟아지다 /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가다 / 가슴이 터지다 / 발이 가다 / 밤이 새는 줄도 모른다 / 한잔 사다 / 옷깃만 스쳐도 인연 / 마음을 먹다 / 다람쥐 쳇바퀴 돌 듯 / 기가 막히다 / 마음이 가벼워지다 / 골치 아프다	26

교재 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검토하기 위해 교재에서의 관용 표현 출현 횟수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의 관용 표현 목록은 교재 구성 표에 제시된 관용 표현 목록뿐만 아니라 교재 전체 즉, 본문, 문법과 표현, 연습 모두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초급에서는 관용 표현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교재의 목표에 따라 관용 표현을 의도적으로 중급이상부터 배치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출현 양상은 2급에서는 4개의 관용 표현이 제시되었고, 3급에서 11회, 4급에서 26회 출현되었다. 목표에 따라 급수별로 출현 횟수가 적절하게 배치되었으나 다른 교재에 비해서 관용 표현의 양이 적다.

[표 6]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수요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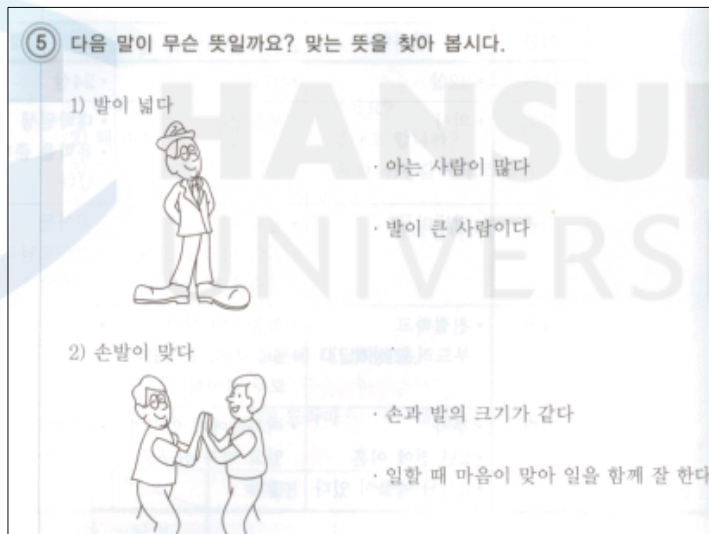
급	과	주제	기능	활동	관용 표현
3	26	친구 결혼식	- 타인의 감정 표현하기 - 간접적으로 정보 전달하기	- 결혼 상대의 조건을 보고 의견 말하기 - 각 나라의 결혼 풍습 말하기 - 관용 표현 이해하기	- 결혼에 관련된 어휘 (애인, 미혼 등) - 눈이 높다, 발이 넓다 등
4	7	선 보기	- 젊은 세대의 결혼관 이해하기 - 정보의 전환 표현하기	- 관용 표현 이해하기 - 이메일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기	사람을 묘사하는 어휘(인상, 인간성 등)

둘째, 구성 체제를 살펴보면 [주제 및 상황], [기능], [문법 및 표현], [활동], [어휘]로 이루어져 있다.

[본문]은 대부분 대화로 구성되었으나, 도입 부분과 기사문의 경우는 산문체의 글이 삽입되었다. [문법 및 표현]은 중심 학습 대상이 되는 문법 사항을 제시하였고, [연습]은 학습된 문법이나 구문을 익히기 위한 문형 연습과 함께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학습 내용을 활용하고 언어를 생성하며 이해할 수 있는 연습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용 표현을 학습 목표로 제시하여 다루는 과의 예시는 [표 6]을 참고한다. [표 6]과 같이 관용 표현의 명칭과 관용 표현의 목록이 나타난 과는 많지 않다. 그러나 교재의 <본문>, <문법과 표현>, <연습>등 전체적으로 관용 표현을 제시하고 있으나 교재 구성 목록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교수요목 중 일부만 관용표현 학습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표 6]을 살펴보면, 관용 표현이 제시된 과의 주제와 기능과의 연계성이 크게 없어 보인다. 3급 교재 중 26과에 배치된 ‘눈이 높다’의 관용 표현은 주제와 기능과의 연계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확장 부분에서의 관용 표현 목록은 신체 관용 표현에 머물러있다는 점에서 주제와 기능을 고려한 배치라고 보기 어렵다.

<그림 3> 서울대학교 관용 표현 제시의 예



셋째, 학습활동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3급 <연습>에 구성된 관용 표현의 확장을 제시한 일부이다. <그림 3>과 같이 그림을 제시하고 언어적 의미의 기본적인 뜻을 제시하고, 관용 표현의 제3의 의미를 제시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친절한 교재의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관용 표현에 대한 다양한 활동이 없고, 대화쌍 같은 단순한 질문에 그친다는 점이 아쉽다.

2. 이화여자대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

『말이 트이는 한국어』는 Beginning, Low intermediate, High intermediate, Advanced I, Advanced II의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외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교재의 대상은 성인 학습자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네 가지 언어 기술을 익힐 수 있는 통합교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교재의 관련 구성물을 살펴보면 Student Book과 Work Book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7] 이화여자대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 관용 표현 목록

급	관용 표현	빈도
1	마음에 들다 / 마음이 넓다 / 더위를 먹다 / 바람맞다 / 한잔 하다	5
2	귀가 가렵다 / 귀가 아프다 / 귀가 얇다 / 눈감아 주다 / 눈이 높다 / 눈이 캄캄하다 / 바가지를 굶다 / 바가지를 쓰다 / 바가지를 씌우다 / 바람을 맞다 / 바람을 쐬다 / 바람을 피우다 / 발 벗고 나서다 / 발을 꿇다 / 발이 넓다 / 손이 크다 / 손이 모자라다 / 손을 잡다 / 입에 맞다 / 입이 무겁다 / 입이 짧다 / 코앞에 닥치다 / 코에 붙이다 / 콧대가 높다 / 한잔 하다 / 마음이 넓다 / 한턱 내다 / 상다리가 부러지다 / 재미를 붙이다	29
3	마음에 들다 / 제 눈에 안경 / 마음이 맞다 /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 수입이 짹짹하다 / 싱거운 사람이다 / 손이 맵다 / 머리가 멍하다 / 그림의 떡 / 꿀 먹은 벙어리 / 한턱 내다 / 일손이 부족하다 / 들통이 나다 / 눈감아 주다 / 꿈에도 몰랐다 / 손가락에 장을 지지다 /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 손이 발이 되도록 빌다 / 하늘의 별따기 / 손이 가다 / 한잔 사다 / 금강산도 식후경 / 삼천포로 빠지다 / 귀에 거슬리다 / 기가 막히다 / 꿈에서 깨다 / 꿈을 꾸다 / 낙동강 오리알 / 눈에 띄다 / 바가지를 굶다 / 비위에 맞다 / 사람이 짜다 / 손에 칼만 안 들다 / 손이 발이 되도록 / 십년감수하다 / 얼굴에 썩어 있다 / 자리를 만들다 / 자리를 잡다 / 주머니가 넉넉하다 / 풀이 죽다 / 하나부터 열까지	41
4	속이 타다 / 바늘 가는 데 실 가다 / 허파에 바람 들다	53

	/ 도깨비에 홀린 기분 / 죽이 맞다 / 척하면 삼천리 / 꿩 구워 먹은 소식 / 한눈에 반하다 / 파김치가 되다 / 도마에 오르다 / 해가 서쪽에서 뜨다 / 한턱 내다 / 고 래 등 같은 기와집 / 목숨을 끊다 / 꼬리에 꼬리를 물 다 / 냄새를 맡다 / 발 뻗고 자다 / 허리띠를 졸라매다 / 한눈을 팔다 / 배꼽을 잡다 / 말이 씨가 되다 / 세월 이 약이다 /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 속을 털어놓다 / 눈치코치가 없다 / 쥐뿔도 없다 / 돈이 돌다 /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앓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다 / 뒤통수를 치다 / 배부른 소리를 하다 / 눈살을 찌푸리다 / 물거품 이 되다 / 옷이 날개다 /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 다 / 돈타령하다 / 배가 아프다 / 침을 흘리다 / 색안경 을 끼고 보다 / 기가 막히다 / 꿈도 못 꾸다 / 냄새를 맡다 / 눈살을 찌푸리다 / 눈에 띄다 / 눈이 어둡다 / 말이 나다 / 말이 많다 / 손가락질을 받다 / 손때가 묻 다 / 숨을 거두다 / 자리를 잡다 / 주머니를 털다 / 큰 소리치다 / 한 뿌리에서 나오다	
5	마음이 통한다 / 발 벗고 나서다 / 시원스러운 대답 / 가슴을 쥐어뜯다 / 마음을 사로잡다 / 얼굴이 더워지다 / 거리를 좁히다 / 고개를 숙이다 / 귀가 얇다 / 기가 죽다 / 마음을 읽다 / 마음을 흔들다 / 목소리를 내다 / 손에 쥐다 / 시야가 좁다 / 열쇠를 차다 / 월계관을 쓰 다 / 자리를 잡다 / 한 눈에 알 수 있다	19

교재 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검토하기 위해 교재에서의 관용 표현 출현 횟수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말이 트이는 한국어』는 다른 교재와는 달리 초급부터 관용 표현이 배치되었다. 관용 표현의 양 또한 다른 교재에 비해서 많은 편이며, 초급에서 중급으로 갈수록 관용 표현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반해 Advanced II에서는 관용 표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금현(1998)²⁰⁾에서는 이는 고급에서 다루는 본문 내용이 구어 자료가 아니고 문어 자료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20) 문금현(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 표현의 교육」, 『이중언어학』 제15호, 이중언어학회, p.215

[표 8] 이화여자대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 초급 교수요목

급	과	주제	기능	관용 표현
2	1	첫 출근	· 소개하기 · 명명하기 · 정의 내리기 · 개인 정보 얻기 · 조언하기/ 구하기 · 어떤 일의 목적 서술하기	발이 넓다 발을 꿰다 발 벗고 나서다
2	3	도시	· 고향 소개하기 · 조언하기 · 여행 경험 말하기 · 정보 얻기	귀가 얇다 귀가 아프다 귀가 가렵다
2	5	은행과 생활	· 재능, 능력 말하기 · 일의 순서 말하기 · 환전하기 · 은행 구좌 열기 · 은행 거래 신청서 작성하기 · 현금 지급기 · 일의 순서	입이 무겁다 입에 맞다 입이 짧다
... (생략)				

둘째, 구성 체계를 살펴보면, 2권은 [문법 구조 및 표현], [기능], [준비 학습 내용], [과제 학습 내용], [선택], [관용 표현], [읽기], [쓰기], [어휘]로 구성되어 있다. 고급 단계에 속하는 4권은 [과제], [모범 대화문], [발음], [재미있는 한국어], [이야기 주머니], [토론], [읽기와 쓰기], [심화 문법], [듣기]로 구성되어 있다.

2권과 4권에서 관용 표현의 고정란을 별도로 제공하고 홀수 과마다 3개의 관용 표현이 배치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다른 교재보다 관용 표현에 대한 비중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급 교재는 주로 신체에 관련된 관용 표현을 다루고 있고, ‘발’, ‘귀’, ‘입’, ‘손’, ‘눈’에 관한 관용 표현이 제시되었다.

주제 및 기능과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9과의 경우 주제는 ‘만남’으로 설정되었고, 본문에는 ‘바람’을 공통 어휘로 하는 표현이 나타난

다. 그 중 ‘바람을 맞다’는 주제와 연계가 잘 이루어진 표현이다. 그러나 그 외에 제시된 ‘바람 피우다, 바람을 쐬다’는 ‘만남’이라는 주제와 어울리는 관용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9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에서는 주제 및 기능과의 연계성을 찾기 어렵다. 이는 초급 단계에서는 신체 관용 표현을 중점적으로 배치한 까닭으로 보인다.

[표 9] 이화여자대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 중급 교수요목

급	과	주제	기능	관용 표현
4	1	아파트 생활	· 아파트 수리 요청하기 · 서술의 글을 읽고 이해하기 ·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표현 익히기 · 아파트 안내 방송 듣고 이해하기	속이 타다 바늘 가는 데 실 가다 허파에 바람들다
4	2	환불	· 환불하기 · 인과의 글을 읽고 이해하기 · 상대방 의견에 찬성하는 표현 익히기 · 라디오 방송 듣고 이해하기	죽이 맞다 척 하면 삼천리 평 구워 먹은 소 식
4	3	잃어버린 비행기 표	· 비행기표 재발급받기 · 연대기적 기술의 글을 읽고 이해하기 · 상대방 의견에 반대, 반박하는 표현 익히기 · 출국 시 동물 검역에 대한 정보 얻기	파김치가 되다 도마에 오르다 해가 서쪽에서 뜨 겠다
... (생략)				

이 교재는 전해영(2001)에서 밝힌 바와 같이 투명도를 중심으로 급별 분류가 이루어졌다.²¹⁾ [표 9]의 중급 교수요목을 살펴보면 투명도의 중간 정

21) 전해영(2001)에 의하면 이화여자대학교 교재에서의 관용 표현의 예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반투명형의 관용 표현을 먼저 가르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의미의 투명성에 따른 관용 표현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반투명형 관용 표현: 눈이 빠지다/ 눈이 높다/ 손을 대다/ 손을 떼다/ 손을 내밀다/ 콧대가 높다/ 코가 납작해지다/ 얼질러진 물
- (2) 반불투명 관용 표현: 그림의 떡/ 우물 안 개구리/ 수박 겉 핥기/ 평 대신 닭/ 개밥에 도토리/ 비행기를 태우다
- (3) 불투명 관용 표현: 시치미를 떼다/ 바가지를 긁다/ 미역국을 먹다/ 빗 좋은 개살구/ 산통을 깨다

도인 반불투명형 관용 표현, 투명도가 높은 불투명형 관용 표현을 중심으로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제 및 기능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주제와 기능과는 상관없는 관용 표현이 제시되어 있고, 이는 투명도에 따른 배치를 하였기 때문에 주제와 기능과의 연계성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림 4> 이화여자대학교 관용 표현 제시의 예

관용 표현 COLLOQUIALISM

- 발이 넓다: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다.
- 발을 굽다: 서로 오가지 않거나 관계를 끊다.
- 발뚱고 나서다: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하다.

1. A: 마이클 씨, 이번에 서울무역에 취직을 했지요? 2. A: 제임스 씨는 요즘 술집에 안 가요?
 영업부 과장 김민용 씨 만나면 제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B: 네. _____
 B: 준호 씨,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입니까? A: 왜요?
 A: 네, 지난 번 무역 박람회 때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B: 건강이 나빠져서요.
 B: 준호 씨는 _____ 모르는 사람이 없군요.

· 속이 타다: 걱정, 근심이 있어서 마음이 달아올라 불이 붙는 듯한 느낌이 들다.
 · 바늘 가는 데 실 가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물건은 서로 같이 따라다니다.
 · 허파에 바람 들다: 실없이 행동하거나 웃어대다.

1. A: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연습도 안 하고 왜 지리고 있지?
 B: 글썽 말이야. 주위 사람들은 _____ 죽겠는데
 당사자는 어떻게 느긋하기만 하네.

2. A: 내일 마이클도 가?
 B: 물론이지. 수잔이 가는데 마이클이 안 가겠어? _____

셋째, 학습 활동을 살펴보기 위해 <그림 4>를 참고한다. <그림 4>는 2급과 4급 교재에 제시된 관용 표현의 일부이다. 관용 표현의 의미를 설명으로 쉽게 풀어서 제시했다. 또한 대화문과 관련된 그림을 제시하고 빈칸 넣기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대화문의 제시를 통해 학습자가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맥락의 유추를 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학습자에게 유용할 것이다.

3. 경희대학교 『한국어』

교재 외적인 구성을 보면 교재의 집필 방향은 통합 교수를 위한 교재이다. 각 단원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모든 언어활동을 포함한다.

교재의 관련 구성물에는 주교재 외에 Work Book이 있고, 각 권은 듣기 테이프를 포함하고 있다.

[표 10] 경희대학교 『한국어』 관용 표현 목록

급	관용 표현	빈도
초급 1	마음에 들다	1
초급 2	새끼손가락을 걸다	1
중급 1	눈이 높다 / 입이 무겁다 / 콧대가 세다 / 손이 크다 / 발이 넓다 / 첫눈에 반하다 / 찐 게 비지떡 /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 누워서 떡 먹기 / 식은 죽 먹기 / 땅 짚고 헤엄치기 / 언 발에 오줌 누기 / 누워서 침 뱉기 / 속을 태우다 / 귀가 얇다 / 나이를 먹다 / 눈치를 보다 / 하늘의 별 따기	18
중급 2	한턱 내다 / 그림의 떡 / 금강산도 식후경 / 눈감아 주다 / 눈을 감다 / 기가 막히다 / 바람을 맞았다 / 바가지를 썼다 / 시치미를 떼거나 / 김칫국부터 마시다 / 마음을 먹다 / 마음을 졸이다 / 목을 놓다 / 발이 넓다 /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다	15
고급 1	귀에 못이 박히다 / 꿀 먹은 벙어리 / 뽕 먹고 알 먹고 / 누이 좋고 매부 좋고 / 눈에 선하다 / 몸이 근질근질하다 / 식은 죽 먹기 / 제 살 깎아 먹기 / 첫눈에 반하다 / 틀에 박히다 / 파김치가 되다 / 팔자가 세다 / 한 배를 타다 / 꿈도 꾸지 말다 / 꿈에도 생각 못하다 / 눈앞이 캄캄하다 / 도토리 키 재기 / 바람을 일으키다 / 수명이 짧다 / 말이 안 나오다 / 한 목소리를 내다	21
고급 2	얕느니 죽지 /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 짝사랑도 오래 하면 병이 된다 / 숨통이 트이게 되다 / 땀을 들이다 / 비행기 태우다 / 가망이 없다 / 상다리가 부러질 지경이다 / 눈앞이 캄캄하다 / 큰일을 당하다 / 망신을 당하다 / 골치가 아프다 / 시작이 반이다 / 날이면 날마다 / 눈을 돌리다 / 목에 힘을 주다 / 뼈를 깎는 듯한 / 심혈을 기울이다 /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 양귀	35

	비 뺄 정도로 / 었친 데 덮친 격 / 이 잡듯이 뒤지다 / 일손을 놓다 / 한숨을 돌리다 / 꿈도 못 꾸다 / 나이를 먹다 / 낮이 설다 / 눈에 떠다 / 눈을 감다 / 마음에 들다 / 벽을 허물다 / 손을 놓다 / 손이 가다 / 신경을 쓰다 / 자리를 잡다	
--	---	--

교재 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검토하기 위해 교재에서의 관용 표현 출현 횟수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초급 1권과 2권에서는 관용 표현이 거의 배치되어 있지 않고, 중급에서 고급까지 제시되고 있다. 경희대학교 교재는 중급에서 고급으로 갈수록 관용 표현의 배치가 많아지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중급에서는 <속담과 관용어>코너를 따로 마련하고 있어 관용 표현에 대한 비중을 다른 교재에 비해 높게 두었다. 그러나 <속담과 관용어>코너를 살펴보면, 한 텍스트 안에서 많게는 8개의 관용 표현이 제시되어 있다. 고급 단계에서는 중급과 같이 <속담과 관용어>코너를 따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한편 고급 1, 2에서는 ‘찾아보기’에 부분에 관용 표현을 부록으로 실고 있다. 그러나 부록에 실린 관용 표현은 속담, 언어 관계의 구분 없는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1] 경희대학교 『한국어』 교수요목

급	과	주제	기능	관용 표현
중급1	2	취미	· 취미 소개하기 · 반말로 이야기하기 · 일의 목적 서술하기	몸과 관련된 관용 표현
중급1	7	정보	· 충고 및 조언하기 · 도서 대출하기 · 인터넷 정보 찾기	명사형으로 끝나는 관용 표현
중급2	2	음식과 요리	· 음식 소개하기 · 비교 설명하기 · 요리 방법 설명하기	속담 속의 띄
중급2	4	분실	· 심정 토로하기 · 분실물 신고하기 · 신용카드 사용의 장단점 토의하기	생활 속의 관용 표현

둘째, 구성 체제를 살펴보면, 초급부터 중급까지는 [단원명], [주제], [기능], [문법/어휘/발음], [과제 활동], [한국 문화/게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관용 표현은 [한국 문화]에 <속담과 관용어>라는 코너를 따로 구성하고 있다. 고급에서는 [단원명], [주제], [문법/표현], [어휘/발음],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로 제시되어 있다. 주로 관용 표현은 <속담과 관용 표현>코너에서 다루고 있으나 고급 단계에서는 [문법/표현]의 연습문제 지문에서 자주 출현한다.

위의 [표 11]을 참고하여 관용 표현과 주제 및 기능의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중급 1권 2과에서 ‘취미’라는 주제가 설정되어 있다. 여기에 <속담과 관용어>코너에 제시된 관용 표현을 살펴보면 ‘눈이 높다, 입이 무겁다, 콧대가 세다, 손이 크다, 발이 넓다, 첫눈에 반하다’와 같은 신체에 관련된 관용 표현이 제시되었다. 이 과에서는 주제와 제시된 관용 표현과의 연계성을 찾기가 힘들다. 다른 교재와 마찬가지로 신체 관용 표현을 우선적으로 배치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중급 2권 4과에서 ‘분실’이라는 주제와 생활 속 관용 표현의 연계성이 있다. 생활 속의 관용 표현의 목록은 ‘한턱 내다, 눈 감아 주다, 눈을 감다, 기가 막히다, 바람을 맞았다, 바가지로 썼다, 바가지 요금을 냈다’이다. 이 텍스트 안에서는 ‘분실’과 관련한 관용 표현을 학습할 수 있으나 한 텍스트 안에서 다루기에 관용 표현의 양이 많아 보인다.

<그림 5> 경희대학교 관용 표현 제시의 예



셋째, 학습 활동에 대한 검토를 보면 <그림 5>와 같다. <속담과 관용어>를 따로 설정하여 텍스트를 통해 제시했기 때문에 관용 표현에 대한 연습이나 활동의 구성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고급 단계에서는 관용 표현에 대한 지면의 할애는 없고, 문법 표현의 연습 중 예문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문법표현의 연습에 관한 지문일 뿐 관용 표현에 대한 연습 또는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이 교재에서는 <속담과 관용 표현>의 고정란에 제시된 관용 표현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실제 의사소통과 유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4. 연세대학교 『연세 한국어』

교재 외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세 한국어』의 목적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성인 교포와 외국인을 위한 교재이다.

통합형 교재로 초급, 중급, 고급 각 2권씩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2] 연세대학교 『연세 한국어』 관용 표현 목록

급	관용 표현	빈도
1	한잔 하다 / 한턱 내다	2
2	문을 닫다 / 한잔 하다 / 한턱 내다	3
3	뭐니 뭐니 해도 / 하늘의 별 따기 / 한턱 내다 /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다 / 가뭄에 콩 나듯 / 땀을 흘리다 / 마음을 놓다 / 마음을 풀다 / 마음이 넓다 / 손이 가다	10
4	손이 크다 / 마음이 통하다 / 한 눈 안 팔다 / 낮을 가리다 / 고집이 세다 / 마음먹다 / 귀 기울이다 / 매를 들다 / 머리를 식히다 / 눈에 띄다 / 한턱 내다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한 눈에 보다 / 쇠귀에 경 읽기 / 피부로 느끼다 / 한 살 더 먹다 / 문이 좁다/ 국수를 먹다 /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다 / 귀가 닳도록 듣다 /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다 / 손이 발이 되도록 빌다 /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다 / 머리가 세다 / 손바닥에서 땀이 나다 / 눈 코 뜰 사이 없다 / 눈을 뜨다 / 눈이 높다 / 마음에 들다 / 밤 낮 없이 / 신경을 쓰다	33

5	손꼽아 기다리다 / 트집을 잡다 / 꿈무니(를) 빼다 / 눈에 띄다 / 한잔 하다 / 부정을 타다 / 뿌리 뽑다 / 첫눈에 반하다 / 한탕을 하다 / 손을 대다 / 눈길을 끌다 / 매를 들다 / 매를 대다 / 상투를 틀다 /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 씨름하다 / 손에 물이 마를 날 없다 / 뉘이 나가다 /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다 / 눈에 선하다 / 입을 다물 수 없다 / 눈 코 뜰 새 없다 / 젓 먹은 힘까지 다 내다 / 날을 잡다 / 도끼눈을 하다 / 막을 내리다 / 말도 못 하다 / 뿌리박다 / 입 씨름을 하다 / 입에 맞다 / 입에 안 맞다 / 자리를 잡다	32
6	어깨가 무겁다 / 눈에 띄다 / 썰기를 박다 / 앓느니 죽지 / 마음 졸이다 / 맨발로 뛰다 / 빙산의 일각 / 주머니 사정 / 찬물을 끼었다 / 손꼽아 기다리다 / 신경을 쓰다 / 주먹을 날리다 / 책과 씨름하다 / 둘도 없다 / 입이 딱 벌어지다 / 피부로 느끼다 / 눈에 띄다 / 손을 거치다 / 한 우물을 파다 / 눈을 돌리다 / 손에 익다 / 몸에 배다 / 판에 박히다 / 뜯구름을 잡다 / 우물 안 개구리 / 귀담아 듣다 / 눈감아 주다 / 도마 위에 오르다 / 뿌리를 내리다 / 손을 들어주다 / 열쇠를 쥐다 / 이 잡듯이 / 자리를 내주다 / 젓 먹던 힘 / 하늘의 별 따기	35

교재 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검토하기 위해 교재에서의 관용 표현 출현 횟수를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관용 표현의 양은 초급, 중급, 고급 합쳐서 115개로 다른 교재에 비해 많이 제시된 편이다.

급별로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면 초급에서는 관용 표현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 중급 단계인 3급부터 관용 표현이 서서히 제시된다. 고급 단계에서는 5급에서 32개, 6급에서 35개로 나타났다.

둘째, 구성 체제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교재에서는 교수요목 중 관용 표현이라는 용어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교재 안에서는 관용 표현을 다루고 있으나 교수요목 안에는 관용 표현에 대한 소개는 전혀 없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재와 달리 교수요목에 대한 표를 따로 제시할 수 없다. 또한 교재 안에서도 관용 표현이라

는 것에 대한 의도적 노출이 없어 학습자가 관용 표현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게 제시되어 있다.

단원과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4급의 ‘명절’의 주제를 가진 과를 참고한다. 이 과에서 제시된 관용 표현은 ‘눈이 빠지도록, 귀가 닳도록, 침이 마르도록’이다. 그러나 관용 표현이라는 언급은 없고 <그림 6>과 같이 ‘-도록’의 문법 표현 연습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관용 표현이 문법 표현의 연습 부분으로 제시되어 있어, 주제 및 기능과 관용 표현의 관계를 고려한 배치라고 보기 어렵다.

<그림 6> 연세대학교 관용 표현 제시의 예

셋째, 학습 활동을 살펴보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은 4급에 제시된 관용 표현의 예이다. 본문에서 나타난 관용 표현에 대한 연습이나 따로 활용하는 부분은 없었다. 간혹 본문 또는 문법 표현 연습에 대한 항목으로 관용 표현이 제시되어 있을 뿐 그 외 활용부분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5. 성균관대학교 『배우기 쉬운 한국어』

성균관대학교 교재인 『배우기 쉬운 한국어』는 2004년에 출판된 교재로서 분석 대상 한국어 교재 중 최근에 개발된 교재 중 하나이다. 교재의 외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재의 목적은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

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학습 현장에서 각 급수별로 10주 동안 약 100시간 정도의 정규과정 수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교재이다.

[표 13] 성균관대학교 『배우기 쉬운 한국어』 관용 표현 목록

급	관용 표현	빈도
1	-	0
2	한턱 내다 / 꿈쩍도 못 한다	2
3	입이 무겁다 / 입맛이 없다 / 입이 나왔다 / 입이 짧다 / 한턱 내다 / 국수 먹다 / 눈이 높다 / 한 눈 팔다 / 귀가 얇다 / 손이 크다 / 발이 넓다 / 입이 무겁다 / 마음이 넓다 / 마음을 다치다 / 마음을 붙이다 / 마음이 무겁다 / 가볍다	17
4	얼굴이 어둡다 / 얼굴이 밝다 / 얼굴이 환하다 / 입맛을 잃다 / 입맛이 되살아나다 / 입맛이 쓰다 / 입맛을 다시다 / 얼굴이 두껍다 / 얼굴을 고치다 / 얼굴이 반쪽이 되다 / 눈에 불을 켜다 / 사돈 남 말 한다	12
5	깨물어 주고 싶다 / 배가 아프다 / 살림이 늘다 / 상을 차려 주다 / 시간이 걸리다 / 일이 안 풀리다 / 일이 잘 풀리다 / 장래를 점치다 / 목숨을 잃다 / 꿈인지 생시인지 / 말할 것도 없다 / 부지런을 떨다 / 더더도 황소걸음 / 책을 떼다 / 풀이 죽다 / 기분이 좋다 / 기분을 풀다 / 기분을 내다 / 살이 오르다 / 하늘의 별 따기 / 뭐니 뭐니 해도 / 목을 치다 / 어처구니가 없다	23
6	팔을 걷어붙이다 / 머리를 식히다 / 불태우다 / 뭐니 뭐니 해도 / 입을 다물지 못하다 / 애가 타다 / 맥이 풀리다 / 오금이 저리다 /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 큰 코 다치다 / 첫눈에 반하다 / 때 빠고 광내다 / 얼굴을 뜯어 먹다 / 어처구니없다 / 허풍을 치다 / 김새다 / 눈빛을 보내다 / 하늘을 찌르다 / 한턱 내다 / 입 싹 씻다 / 눈이 멀다 / 골탕을 먹이다 / 한숨 돌리다 / 입에 풀칠하다 / 길눈이 어둡다 / 군침을 삼키다 / 몸이 허하다 / 입이 걸다 / 어처구니가 없다 / 용을 쓰다 / 한술 더 뜨다 / 티끌 모아 태산이다	32

교재 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용 표현의 출현 횟수를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초급 단계에서는 관용 표현의 제시가 거의

없고, 중급 단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고급 단계에서 관용 표현의 양이 많아지는 수직적 분포를 이루고 있다.

중급에 배치된 관용 표현은 ‘입, 눈, 마음, 얼굴, 입맛’ 등 주로 신체에 관련된 관용 표현이다. 중급에서는 교수요목에 제시된 관용 표현 외에는 본문이나 연습문제에서 관용 표현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표 14] 성균관대학교 『배우기 쉬운 한국어』 교수요목

급	과	주제	기능	관용 표현
3급	7	주문	· 계획의 표현 익히기 · 시간의 경과 표현 익히기2 · ‘얼굴’에 대한 관용어 정리	
3급	13	결혼식	· 목적의 표현 익히기 · 관용어구 익히기 · 사동의 표현 익히기 · 이유의 문어체적 표현	
3급	19	흑부리 영감님	· 피동사를 배우고 적절한 표현을 연습 · 첨가하여 말하기 · 의성어, 의태어 활용하여 연습하기	‘ 마음 ’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관용어구
4급	7	세대 차이	· 가치관 차이 말하기 · 고민 표현하기	‘ 얼굴 ’과 관련된 관용구 ‘ 입맛 ’과 관련된 관용구
5급	3	바가지로 벽을 뚫은 아이	· 성실한 태도 이해하기 · 고사성어와 속담 익히기 · 옛날이야기 형식 알기 · 위로하는 방법	연습문제/종합문제 관용적 표현
5급	5	웃으면 복이 와요	· 웃음이 주는 효용 알기 · 기분을 나타내는 표현 익히기 · 청유 문장 익히기 · 신체에 대한 표현 · 설명하는 방법	연습문제/ 종합문제 웃음과 관련된 관용적 표현 기분과 관련된 관용적 표현 신체 변화에 대한 표현
5급	7	한국어 잘하는 법	· 언어 학습법에 대해 익히기 · 실수를 통한 언어 학습 알기 · 당위와 의무 표현 · 시간에 대한 표현 · 연설과 강연에 대한 학습	연습문제/ 종합문제 관용어 넣기

둘째, 교재의 구성 체제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재구성은 [단원], [기능], [문법과 표현], [연습], [심화활동]으로 되어있다. 이 교재에서 관용 표현은 주로 [연습]에서 다루고 있다.

제시된 관용 표현과 전체의 구성 모형의 연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표 14]를 참고 한다. 3급 7과의 예를 보면 ‘얼굴’에 대한 관용 표현이 제시된 과의 주제는 ‘주문’이다. 이와 같이 중급에서는 신체에 관련된 관용 표현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문’이라는 주제와 기능과의 연계성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고급 단계에 제시한 ‘웃으면 복이 와요’ 주제와 관련하여 ‘웃음’과 관련된 관용 표현을 제시하여 다소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다른 언어 기술 활동은 없이 ‘웃음’에 대한 관용 표현만을 제시한 데에 그쳤다.

<그림 7> 성균관대학교 관용 표현 제시의 예

6. '입'에 대한 관용어 (1) 입에 맞다 이 식당 음식은 내 입에 잘 맞는 것 같다. (2) 입이 무겁다 왕홍은 입이 무거워서 비밀을 이야기해도 안심이다. (3) 입맛이 없다 감기에 걸려서 입맛이 없는 것 같다. (4) 입이 나왔다 동생은 어머니께 혼이 나서 입이 나왔다. (5) 입이 짧다 나오코는 입이 짧아서 음식을 조금밖에 먹지 않는다.	5. '입'에 대한 관용구를 써 보세요. 1)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내가 먹기에는 맛있다. → _____ 2) 비밀을 잘 지킨다. → _____ 3) 아프거나 기분이 안 좋아서 밥을 먹고 싶지 않다. → _____ 4) 화가 나서 빠졌다. → _____
---	--

셋째, 학습 활동 부분을 살펴보면 <그림 7>과 같다. 관용 표현의 연습을 <문법과 표현>에서 제시하였다. <문법과 표현>에서는 관용 표현을 찾는 연습을 구성하였으나 단순히 A, B의 대화 쌍으로 나와 있다. 이러한 관용 표현 학습 활동으로는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거나 효과적인 관용 표현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제 3 절 한국어 교재의 관용 표현 분석 결과 및 문제점

각 기관별 교재를 검토한 결과 5개 기관의 교재에서 모두 관용 표현을 다루고 있다. 이하 (가)는 서울대학교 교재, (나)는 이화여자대학교, (다)는 경희대학교, (라)는 연세대학교, (마)는 성균관대학교를 지칭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교재는 (나)교재를 제외하고, 초급 단계에서 거의 관용 표현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나)를 제외한 나머지 교재들은 중급과 고급 단계에서 관용 표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가)(나)(다)(라)교재에서는 교수요목에 관용 표현 또는 관용어를 소개하고 있으나 (마)의 교재에서는 관용 표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1장에서의 교재 분석 틀을 기준으로 각 교재마다의 관용 표현에 대한 양상을 살펴보았다.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15]와 같다.

[표 15] 한국어 교재의 관용 표현 분석 결과

분석기준	(가)	(나)	(다)	(라)	(마)
관용 표현 횟수	41	147	91	115	86
급수별 양상	초급 0	초급 34	초급 2	초급 5	초급 2
	중급 15	중급 94	중급 33	중급 43	중급 29
	고급 26	고급 19	고급 56	고급 67	고급 55
고정란	X	O	O	X	X
활동 제시	· 확장에서 제시 · 대화쌍 제시	A,B대화쌍 그림으로 제시	X	X	대화쌍 제시

첫째, 교재마다 배치된 관용 표현의 양의 차이가 있다. 관용 표현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교재는 (나)로 ‘문화’에 비중을 둔만큼 관용 표현이 많이 제시되었다. 반면에 (가)의 교재는 다른 교재에서 비해 관용 표현의 양이 현저히 적게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학습자가 알아야 할 관용 표현의 배치

된 양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교재별로 제시된 관용 표현의 양이 비슷하지 않다. 이것은 교재에 따라 학습자가 알고 있는 관용 표현의 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 반드시 학습해야 할 교육용 관용 표현의 개수가 선정되고 이것이 교재에 수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재마다 관용 표현의 급수별 양상의 불일치이다. (가)(다)(마) 교재의 경우 초급에서 관용 표현을 거의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마)의 초급 교재에서 나타난 2회의 관용 표현 횟수는 관용 표현임을 노출시키지 않고 본문에 나타난 경우를 포함한 것이다.

또한 관용 표현은 중급과 고급에서 집중적으로 출현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중급보다 고급에 배치된 양보다 많은 교재도 있었다. 이는 교재에서 관용 표현의 배치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관용 표현은 초급 → 중급 → 고급 순으로 배치의 양을 늘려야 할 것이다. 초급 단계에서는 어휘나 표현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관용 표현을 몇 개만 배치하도록 하고, 중급 단계에서는 기본 문장을 떠나 관용 표현을 사용한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이므로 문화적인 기초 관용 표현들 위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고급 단계에서는 관용 표현이 역사 문화적 배경을 가진 관용 표현들을 중점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렇듯 교육용 관용 표현은 급별 난이도에 맞게 체계적인 목록이 교재에 수록되어야 한다.

셋째, 단원의 주제 및 기능과 관용 표현의 연계성이 없다. (나)교재를 살펴보면 주제는 ‘첫 출근’이고 기능은 ‘소개하기, 명명하기, 정의내리기, 개인 정보 얻기, 조언하기/구하기, 어떤 일의 목적 서술하기’이다. 이 과에서 제시된 관용 표현은 ‘발이 넓다, 발을 꿔다, 발 벗고 나서다’이다. 이는 투명도가 높고, 신체에 관련된 관용 표현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원의 주제와 기능의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기능면에서 관용 표현과 활동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다.

전혜영(2001)에 따르면 그동안 교재에서는 주제와 기능을 연결하려는 작업은 있어왔다. 그러나 관용 표현은 별도의 항목을 설정하거나 별도의 수업 시간을 정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보았을 때 교재에서 관

용 표현의 배치는 주제와 기능의 상관성을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상황의 주제와 기능이 적절한 관용 표현 요소와 함께 어우러져 교재에 제시된다면 가장 의사소통적이고 바람직한 수업으로서 관용 표현 교육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단원의 주제와 기능이 관용 표현과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관용 표현의 제시 방법의 적절성 문제이다. 현재 (나)의 교재는 2권과 4권에서 홀수 과마다 관용 표현의 고정란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교재에서는 관용 표현이 단순히 나열식으로 제시되거나 한 과에서 많은 양의 관용 표현이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관용 표현은 한 나라의 문화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습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관용 표현을 한 과에서 몰아서 학습하게 된다면 관용 표현의 제3의 의미만을 파악하는 데 그칠 수 있다. 또한 관용 표현의 의미만을 암기하는 비효율적인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학습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결국에는 담화 맥락 상황에서 적절한 관용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한 과에서 집중적으로 제시하기보다 관용 표현이 갖는 의미에 따라 주제와 기능이 상호 연관성을 갖고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다섯째, 활동에서의 관용 표현 학습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본문 또는 예시문에 관용 표현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활용한 활동이나 연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교재의 경우 다른 교재에 비해 관용 표현을 비교적 많이 다루고 있다. 그러나 관용 표현에 대한 연습이나 활동으로 연계되지 않는다.

다른 교재에서 간혹 연습 부분에 마련된 경우가 있으나 이 역시도 문제의 유형이 다양하지 않고, 적절한 문맥 및 상황에 알맞은 예문을 많이 제시하지 못하여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연습, 활용 학습은 학습자가 미처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교사가 피드백할 수 있는 학습의 중요한 일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이러한 연습, 활용 연

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의 유형을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하고, 적절한 문맥이나 상황에 맞는 예문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 난이도가 높은 관용 표현들에 대한 복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학습자의 표현 능력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본 장에서는 교재에 제시된 관용 표현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4장에서는 본 장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



제 4 장 관용 표현의 교육 구성 방안

제 1 절 관용 표현의 단계화

1. 교육용 관용 표현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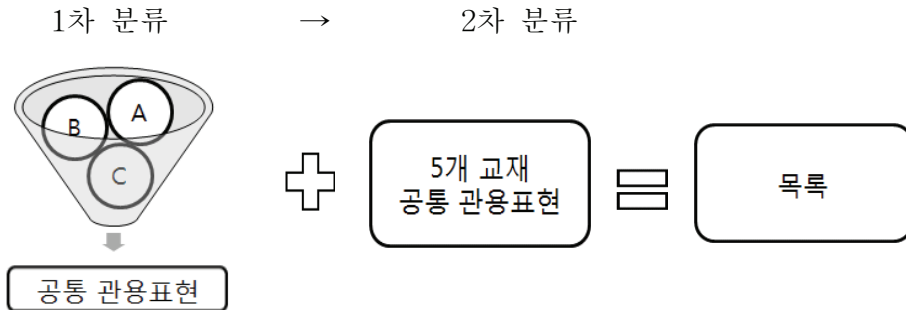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시 알아야 할 관용 표현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외국인 학습자가 모든 한국어 관용 표현을 학습할 수는 없지만, 그 중 외국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관용 표현 목록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교육용 관용 표현 목록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교육용 관용 표현의 표준 목록이 구성된다면 ‘사용 빈도, 난이도, 문화적인 요소, 이해도’ 등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그 중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한국인의 사용 빈도이다. 이는 원어민 화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관용 표현일수록 접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3장 한국어 교재에서 추출한 관용 표현과 사용 빈도에 초점을 둔 연구에서 도출한 관용 표현 목록을 바탕으로 급별 관용 표현 목록을 구성하고자 한다.

여기서 교재에서의 관용 표현 추출만을 대상으로 삼지 않은 이유는 현재 한국어 교재의 관용 표현 목록은 빈도수를 근거에 두고 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재에서의 관용 표현 목록의 체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두고 목록을 선정하기에 신뢰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 사용 빈도를 추출한 기존 논문의 연구를 참고하여 관용 표현 목록을 구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할 관용 표현 목록의 추출 방법은 아래의 <그림 8>과 같다.

<그림 8> 관용 표현 추출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아래의 연구를 토대로 선별하였다.

- (A) 국제교육진흥원에서 개발한 『속담100 관용어100』
(B) 김선정, 강현자 (2006)²²⁾의 ‘관용어 목록과 이야기 구성’
(C) 문금현 (1998)²³⁾의 ‘학습 단계별 관용 표현의 목록’

『속담100 관용어100』에서는 현대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빈도와 범위가 넓은 표현과 한국어 학습자가 실제 언어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표현, 그리고 학습자의 연령(성인) 및 목적(한국어 학습 및 한국 문화 이해)에 적합한 관용어 100개가 활용 예문과 함께 제시된다.

[표 16] 국제교육진흥원 『속담100 관용어100』

관 용 어 1 0 0	가슴이 뜨끔하다 / 가슴(이) 찡하다 / 가시(가) 돌치다 / 가시방석에 앉다 / 가시밭길을 걷다 / 각광(을) 받다 / 간에 기별도 안 가다 / 간 이 콩알만 해지다 / 거북이걸음 / 거울(로) 삼다 / 고배를 마시다 / 국 수(를) 먹다 / 굴뚝같다 / 궁둥이가 가렵다 / 귀가 가렵다 / 귀가 여리 다 / 귀신이 곡(을) 하다 / 귀에 거슬리다 / 귀에 못이 박히다 / 귤등 으로 들다 / 깨가 쏟아지다 / 깨소금 맛이다 / 꿀 먹은 병어리 / 날개 (가) 돌치다 / 낮(이) 뜨겁다 / 내 코가 석자 / 놀부 심보 / 눈에 넣어 도 아프지 않다 / 눈에 들다 / 눈에 불을 켜다 / 눈(을) 붙이다 / 눈이 높다 / 눈코 뜰 새 없다 / 다리(를) 뻗고 자다 / 담(을) 쌓다 / 돈방석
----------------------------	--

22) 김선정 외(2006), 「한국어 관용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및 단위 제시」, 『이중언어학』 제32호, 이중언어학회, p.43

23) 문금현(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 표현의 교육」, 『이중언어학』 제15호, 이중언어학회, p.226

	에 앉다 / 두각을 나타내다 / 등(을) 돌리다 / 땅에 떨어지다 / 땀(을) 흘리다 / 말꼬리(를) 잡다 / 말꼬리(를) 흐리다 / 말이 아니다 / 맛장구(를) 치다 / 매듭(을) 짓다 / 먹칠(을) 하다 / 목(이) 빠지다 / 몸살(을) 앓다 / 못(을) 박다 / 문턱이 닳다 / 물불(을) 가리지 않다 / 물(이) 들다 / 밑도 끝도 없다 / 바가지(를) 쓰다 / 바람(을) 피우다 /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 발목(을) 잡다 / 발(을) 벗고 나서다 / 발이 넓다 / 배(가) 아프다 / 배꼽(을) 잡다 / 벼락치기 / 병아리 눈물 / 불티(가) 나다 / 비행기(를) 태우다 / 손가락질(을) 하다 / 손발(이) 맞다 / 손에 땀을 쥐다 / 손(을) 놓다 / 손(을) 쓰다 / 손(이) 빠르다 / 손(이) 크다 / 시치미(를) 떼다 / 애(가) 타다 / 애(를) 먹다 / 어깨가 무겁다 / 얼굴(이) 두껍다 / 입에 맞다 / 입에 침이 마르다 / 입이 가볍다 / 입이 짧다 / 입주의 여지가 없다 / 전철을 밟다 / 제 눈의 안경이다 / 주머니(가) 가볍다 / 쥐도 새도 모르게 / 진땀(을) 흘리다 / 찬물(을) 끼었다 / 찬밥 신세 / 코가 납작해지다 / 과감치가 되다 / 팔짱만 끼고 있다 / 피눈물(이) 나다 / 피땀(을) 흘리다 / 한 눈(을) 팔다 / 한턱(을) 내다 / 함흥차사 / 햇빛을 보다 / 허리띠(를) 졸라매다 / 혀를 차다
--	---

김선정, 강현자(2006)에서 선정한 목록은 국제교육진흥원과 ‘한국어 교수법 개발 최종 보고서’ (한국어 세계화 재단, 2002)를 참고로 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외국인 학습자가 반드시 배워야 할 학습용 관용 표현 57개를 초급과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표 17] 김선정 외(2006) 관용 표현 목록

초급	귀가 얇다 / 입이 가볍다 / 눈이 높다 / 마음을 먹다 / 마음에 들다 / 입에 맞다 / 발이 넓다 / 손이 크다 / 한잔 하다 / 한턱 내다
중급	가슴이 찡하다 / 발 벗고 나서다 / 골치가 아프다 / 굴뚝같다 / 국수를 먹다 / 배가 아프다 / 귀가 가렵다 / 얼굴이 두껍다 / 기가 막히다 / 바람을 피우다 / 낮 뜨겁다 / 진땀을 흘리다 / 내코가 석자 / 어깨가 무겁다 / 눈을 감아주다 / 눈에 불을 켜다 / 눈이 빠지다 / 바람을 맞다 / 눈코 뜰 새 없다 /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 바가지를 쓰다 / 비행기를 태우다 / 발목을 잡다 / 애를 먹다 / 손발이 맞다 / 쥐도 새도 모르게 / 손을 보다 / 한 눈을 팔다 / 제 눈에 안경이다
고급	콧대가 높다 / 가슴이 뜨끔하다 / 간이 콩알 만해지다 / 가시방석에 앉다 / 입에 침이 마르다 / 귀에 못이 박히다 / 눈도 깜짝 안 하다 / 날개가 돋치다 / 담을 쌓다 / 눈독을 들이다 / 땀 들

	이다 / 다리를 뺏고 자다 / 파김치가 되다 / 몸살이 나다 / 물불 가리지 않다 / 손에 땀을 쥐다 / 코가 납작해지다 / 시치미를 떼다 / 허리띠를 졸라매다 / 찬물을 끼었다 / 한술 더 뜨다
--	---

문금현(1998)²⁴⁾에서는 총 66개의 관용 표현 목록을 선정하였다. 목록의 기준으로는 형식적인 유형, 한국인의 사용 빈도, 의미의 투명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관용 표현의 항목에 대한 외국인의 인지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표 18] 문금현(1998) 학습 단계별 관용 표현의 목록

		초급(8개)	중급(19개)	고급(39개)
구 어	이 해 I 듣 기 용	열받다(1)	꼴 때린다/ 김이 새다/ 속을 썩이다/ 속이 타다/ 애를 쓰다/ 애가 타다/ 뺑소니치다/ 기를 쓰다(8)	오리발을 내밀다/ 시치미를 떼다/ 들통이 나다/ 눈독을 들이다/ 바가지를 굶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다/한 술 더 뜨다/ 비행기 태우다/ 미역국을 먹다/ 우물안 개구리/ 수박 겉 핥기(11)
	표 현 I 말 하 기 용	기가 막히다/마음에 들다/한턱 내다/ 마음을 먹다/ 한잔 하다(5)	바가지를 쓰다/ 시집을 가다/ 눈을 감아 주다/ 눈이 빠지게/ 장가를 가다/ 입이 가볍다/ 입이 무겁다/ 어깨가 무겁다(8)	손을 대다/ 손을 떼다/ 발뺨을 하다/ 바람을 맞다/ 귀에 못이 박히다/ 금이 가다/ 콧대가 높다/ 도토리 키 재기/ 애를 먹다/ 입이 침이 마르도록/ 선수를 치다/ 히트를 치다/ 꼬리를 물다/ 눈하나 깜짝하지 않다/ 뿌리를 뽑다/ 손발이 맞다/ 이를 갈다/ 입을 모으다(18)
	문 어 해	하늘의 별 따기/그림의 떡(2)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불난 데 부채질	몸살을 앓다/ 도마에 오르다/ 맞불을 놓다/

24) 본고에서는 문금현(1999)에서 나눈 구어와 문어를 구분하지 않는다. 구어와 문어의 차이는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분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구어에서는 비속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양상을 띠는데 이것은 교육용 어휘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서이다.

II 읽 기 용		하다/ 불뚱이 튀다 (3)	무릎을 꿇다/ 제 살 깎아먹기/ 칼을 빼들다/ 겁은 돈 세탁/ 새 술은 새 부대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판도라의 상자(10)
표 현 II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분류 목록을 취합하여,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관용 표현을 추출하였다.

두 번째 작업으로 3장의 관용 표현 교재 분석을 토대로 선별하였다. 총 5개 기관의 교재에서 제시된 관용 표현을 취합하여 그 중 2회 이상 출현한 관용 표현을 선별하였다. 이 목록에서 한 기관의 교재 중 동일 급수에서 출현하는 관용 표현 횟수는 포함하지 않았다.

[표 19] 5개 교재에서 2회 이상 제시된 관용 표현

관용 표현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골치가 아프다, 국수를 먹다, 귀가 가렵다, 귀가 앓다, 그림의 떡, 금강산도 식후경, 기가 막히다, 김칫국부터 마시다, 꿀 먹은 벙어리, 꿈도 못 꾸다, 나이를 먹다, 냄새를 맡다, 눈 코 뜰 새 없다, 눈감아 주다, 눈살을 찌푸리다, 눈에 띄다, 눈에 선하다, 눈을 감다, 눈을 돌리다, 눈이 높다,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다, 도마 위에 오르다, 마음에 들다, 마음을 먹다, 마음이 넓다, 마음이 통하다, 매를 들다, 머리를 식히다, 뭐니 뭐니 해도, 바가지를 굶다, 바가지를 쓰다, 바람을 맞다, 발이 넓다, 배가 아프다, 비행기를 태우다, 상다리가 부러질 지경이다, 손꼽아 기다리다, 손이 가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다, 손이 크다, 식은 죽 먹기, 신경을 쓰다, 앓느니 죽지, 어처구니가 없다, 우물 안의 개구리, 이 잡듯이 되지다, 입이 무겁다, 입이 짧다, 자리를 잡다, 젓 먹은 힘까지 다 낸다, 제 눈에 안경이다, 첫눈에 반하다, 파김치가 되다, 풀이 죽다, 피부로 느끼다, 하늘의 별 따기, 한눈팔다, 한숨을 돌리다, 한잔 사다, 한잔 하다, 한턱 내다

1차 분류와 2차 교재 분류에서 공통된 관용 표현은 총 65개가 선별되었다. 다시 다섯 권의 교재 중 두 교재에서 출현한 관용 표현 33개를 선별하고, 1차 분류 중 (A), (B), (C)의 연구에서 공통되었지만 교재에는 출현하지 않았던 16개의 관용 표현을 포함하였다.

본고에서 최종 선별한 관용 표현은 총 114개이다. 다음 절에서 선별된 관용 표현 목록에 대한 난이도 등급을 제시한다.

2. 단계별 관용 표현 목록

앞 절에서 구성한 관용 표현 목록은 급수에 맞게 등급화할 필요가 있다. 즉 초급, 중급, 고급으로 학습자가 단계에 맞는 관용 표현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급수별로 관용 표현이 배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초급 단계에서 잘 사용되지 않으며 배경 설명이 필요한 관용 표현이 제시된다면 학습자는 학습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단계별 관용 표현 목록이 선정되어야 한다. 이에 앞서 4.1에서 선별한 관용 표현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등급화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한재영 외:534참고)

초급에서는 어휘나 표현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한국인에게 사용 빈도가 높고 외국인에게 인지도도 높으며 어느 나라에나 있을 수 있는 관용 표현을 몇 개만 학습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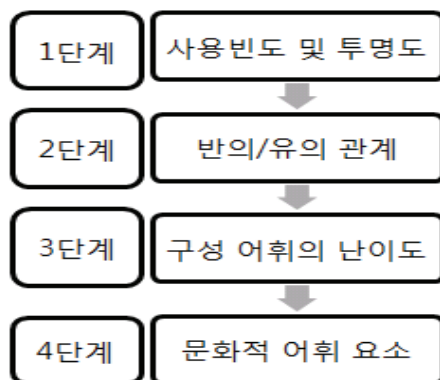
중급 단계에서는 기본 문장을 떠나 관용 표현을 사용한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단계이므로 본격적인 관용 표현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문화적인 기초 관용 표현들을 위주로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급 단계에서는 관용 표현이 글자 그대로의 의미와 관용 의미로 해석되는 중의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숙지시키고, 역사 문화적 배경을 가진 관용 표현들은 생성 배경과 어원을 따로 설명해 준다.²⁵⁾ 이에 따라 관용 표현의 등급화 기준을 설정하면 총 4개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

25) 한재영외(2005), 『한국어 교수법』, 태학사, p.534

관용 표현의 등급화 기준은 사용 빈도 및 투명도, 반의 관용 표현/유의 관용 표현, 구성 어휘의 난이도²⁶⁾, 문화적 어휘 요소이다. 4가지 기준 중 우선 순위를 선정한 도식을 제시하면 <그림9>와 같다.

<그림 9> 관용 표현의 등급화 기준



첫째, 1차 기준은 사용 빈도 및 투명도이다. 사용 빈도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관용 표현일수록 학습자가 마주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한국어 교재는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제작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의 관용 표현 목록은 사용 빈도를 우선 순위로 둔다.

여기에 관용 표현의 투명도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투명도가 낮을수록 학습자가 의미 유추가 쉬울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모국어와도 유사한 관용 표현이 있기 때문이다.

관용 표현은 투명도에 따라서 투명도가 높을수록 ‘투명도 상, 투명도 중, 투명도 하’로 구분할 수 있고, 사용 빈도에 따라서 ‘사용 빈도 상, 사용 빈도 중, 사용 빈도 하’로 분류할 수 있다.²⁷⁾

이와 같이 임혜진(2007)²⁸⁾의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사용 빈도 및 투명도를 단계별 목록에 반영하고자 한다. 관용 표현 사용 빈도 및 의미의 투명도의 목록을 제시하면 [표 20]과 같다.

26) 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참고

27) 임혜진(2007), 「학습자 수준별 관용 표현 교수항목에 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8) 임혜진(2007)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외국인 학습자 30명과 한국어 관련 석사과정 재학 이상인 한국어 화자 35명, 한국어 교육 경험이 5년 이상 된 한국어 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다.

[표 20] 의미의 투명도 및 사용 빈도

투명도 상 사용 빈도 상	투명도 상 사용 빈도 중	투명도 상 사용 빈도 하
투명도 중 사용 빈도 상	투명도 중 사용 빈도 중	투명도 중 사용 빈도 하
투명도 하 사용 빈도 상	투명도 하 사용 빈도 중	투명도 하 사용 빈도 하

9개의 셀이 3가지 색으로 채워져 있는데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관용 표현의 교수항목이다.

초급은 제일 진한 색으로 채워진 ‘투명도 상, 사용 빈도 상’의 셀이다. 초급 단계의 학습자들은 어휘와 문법 모두 기초적인 학습 단계이므로 어휘 고유의 의미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투명도가 낮은 관용 표현들을 학습하기 어려운 단계이다.

중급은 중간 정도의 진한 색으로 ‘투명도 상, 사용 빈도 중’, ‘투명도 중, 사용 빈도 상’으로 모두 의미의 투명도와 사용 빈도가 중간 이상인 관용 표현 목록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중급에서 가르쳐야 할 관용 표현 교수항목이다.

고급은 ‘투명도 중, 사용 빈도 중’을 포함한 총 6개의 셀에 해당된다. 여기서는 의미의 투명도와 사용 빈도가 모두 보통 이하라고 분석된다.

임혜진(2007)에서는 ‘투명도 중, 사용 빈도 중’을 중급 단계에 두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 단계에서 분류된 관용 표현들을 2차 3차 기준에 적용한 결과 ‘투명도 중, 사용 빈도 중’의 셀은 고급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2차 기준은 반의 관용 표현/유의 관용 표현이다. 유의 관용 표현과 반의 관용 표현을 이용한 배치는 상황이나 예문을 통해 의미를 설명하는 것보다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사용하는 유의어, 반의어는 이미 학습자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반의 관용 표현과 유의 관용 표현은 활용부분에서도 확장하여 교육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급 단계에서는 유의, 반의 관용 표현을 배치하였다.

셋째, 나머지 부차적인 기준은 구성 어휘의 난이도이다. 관용 표현은 구성 어휘의 개별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보다는 관용 표현을 덩어리로 학습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초급에서 ‘귀에 거슬리다’와 같은 투명도가 높으나 ‘거슬리다’와 같이 어휘의 난이도가 초급 단계에 적절하지 않은 관용 표현이라면 학습자는 개별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제3의 의미를 유추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구성하고 있는 형태소나 단어의 일차적 의미에 대한 지식과 함께 문장의 구성에 대한 이해, 문장의 의미 형성에 기여하는 맥락적 지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다음 단계인 관용 표현의 함축적 의미의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초급, 중급, 고급의 어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다.

넷째, 문화적인 어휘 요소이다. 관용 표현에 함축된 문화²⁹⁾를 고려한 것이다. 이미혜(2004)에 따르면 관용 표현은 문화적인 의미와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언어의 제 요소들은 문화적인 설명에 기초할 때 효과적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³⁰⁾ 불투명한 유형에 속하는 관용 표현은 학습자들이 어휘 자체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문화적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가령 ‘시치미를 떼다’라는 관용 표현을 교육한다면 어원의 유래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옛날에 매의 주인을 밝히기 위하여 주소를 적어둔 뿔을 ‘시치미’라고 하는데 남의 매를 훔칠 때에 이름이 적힌 시치미를 떼는 것에서 유래하여 ‘시치미를 떼다’라는 말이 생겼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화적인 어휘의 기질을 가진 관용 표현은 난이도를 고려하여 급별 배치를 한다.

앞에서 제시한 4가지 기준 중 구성 어휘의 난이도와 문화적인 어휘 요소는 부차적인 요소로서 기준점을 제시하였고, 본고에서는 사용 빈도와 투명도, 유의/반의 관용 표현의 관계에 대한 비중을 두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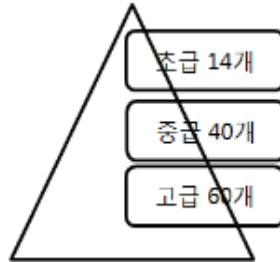
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관용 표현을 급수별 구성을 하면 다음과 같

29) 권오경(2009)에서는 문화의 내용을 성취문화, 행동문화, 관념문화로 구분하였다. 성취문화에서는 인간이 이룩한 유·무형의 업적물과 자연·생태문화가 해당된다고 하였다. 성취문화의 하위영역으로는 일상생활, 민족상징, 제도, 예술, 산업기술로 설정하였다. 관념문화는 민족성(민족의 성격, 경향), 정서(감성적으로 이끌리거나 선택과정에서 선호하는 것), 가치관(옳다, 혹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시각), 사상(가치나 정서보다 더 체계성을 가지거나 학문적으로 완성된 것), 신앙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학습자에게 다소 유추가 어려운 성취문화와 관념문화의 면모가 강한 문화적 어휘들을 대상으로 한다.

30) 이미혜(2004),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통합 교육」, 『한국언어문화학』 1집,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pp.143-163

다. 교재에서의 관용 표현의 양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듯이 [초급 → 중급 → 고급]순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분포로 구성한다.³¹⁾

<그림 10> 관용 표현의 급수별 분포 양상



본고에서 제시한 관용 표현의 목록은 <그림 10>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된다. 초급 단계에서 14개, 중급 단계에서 40개, 고급 단계에서 60개로 구성하였다. 급수별 관용 표현의 목록은 [표 21]과 같다.

[표 21] 학습 단계별 관용 표현 목록

급 별	관용 표현
초급 (14)	눈이 높다 / 귀가 얇다 / 마음에 들다 / 마음을 먹다 / 마음이 넓다 / 마음이 통하다 / 발이 넓다 / 손이 크다/입에 맞다 / 입이 가볍다 / 입이 무겁다 / 첫눈에 반하다 / 한턱 내다 / 한잔하다
중급 (40)	그림의 떡 / 가슴이 뜨끔하다 / 가슴이 찡하다 /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 귀가 가렵다 / 귀에 거슬리다 / 김새다 / 꿈도 못꾸다 / 나이를 먹다 / 낮이 뜨겁다 / 눈 감아 주다 / 눈에 띄다 / 눈에 선하다 / 눈을 감다 / 눈을 돌리다 /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다 / 눈코 뜰 새 없다 / 땀을 들이다 / 매를 들다 / 머리를 식히다 / 뭐니 뭐니 해도 / 배가 아프다 / 상다리가 부러지다 / 손가락질을 받다 / 손꼽아 기다리다 / 손을 놓다 / 손을 보다 / 손이 가다 / 식은 죽 먹기 / 신경을 쓰다 / 앓느니 죽지 / 어깨가 무겁다 / 얼굴이 두껍다 / 입이 짧다 / 자리를 잡다 / 쥐도 새도 모르게 / 피부로 느끼다 / 하늘의 별 따기 / 한잔 사다 / 한숨을 돌리다

31) 전혜영(2001)에서는 초급에서는 의미 파악이 쉬운 것으로 10개 이내로 제한하고, 중급에서는 20개~30개 정도로 수를 늘리고, 고급 단계에서는 40~60개를 설정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고급 (60)	가시방석에 앉다 / 간이 콩알만 해지다 / 골치가 아프다 / 국수를 먹다 / 굴뚝같다 / 귀에 못이 박히다 / 금강산도 식후경 / 기가 막히다 / 김치국부터 마시다 / 깨가 쏟아지다 / 꼬리에 꼬리를 물다 / 꿀 먹은 벙어리 / 날개가 돋치다 / 내 코가 석자 / 냄새를 맡다 / 눈살을 찌푸리다 /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 눈에 불을 켜다 / 담을 쌓다 / 도마 위에 오르다 / 도토리 키 재기 / 들통이 나다 / 땀을 흘리다 / 몸살을 앓다 /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다 / 물불을 가리지 않다 / 바가지 씌우다 / 바가지를 긁다 / 바가지를 쓰다 / 바람을 맞다 / 바람을 피우다 / 발 벗고 나서다 / 발 뻗고 자다 /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 발목을 잡다 / 배꼽을 잡다 / 비행기를 태우다 / 뿌리 뽑다 / 속을 태우다 / 손발이 맞다 / 손에 땀을 쥐다 / 손을 대다 / 손이 발이 되도록 밀다 / 시치미를 떼다 / 애가 타다 / 애를 먹다 / 어처구니가 없다 / 우물 안의 개구리 / 이 잡듯이 뒤지다 / 입에 침이 마르도록 / 젓 먹은 힘까지 다 내다 / 제 눈에 안경이다 / 제 살 깎아 먹기 / 찬물을 끼얹다 / 코가 납작해지다 / 콧대가 높다 / 과김치가 되다 / 풀이 죽다 / 한눈팔다 / 허리띠를 졸라매다
------------	--

제 2 절 주제 및 기능과 관용 표현의 연계 구성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교재에서 관용 표현은 주제 및 기능과의 상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단원과 유기적인 연계성에 대한 중요성을 다룬 논의로는, 문법과의 연계성을 지적한 김유정(2001)이 있다.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교재는 실세계와 가장 잘 어울리는 상황들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언어 외적인 요소인 의사소통 맥락 즉 상황과 언어적 요소를 잘 결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제와 기능과 문법이 잘 연결될 때라고 하였다. 적절한 상황에서 주제와 기능이 적절한 문법 요소와 함께 어우러질 때 가장 의사소통적이고 바람직한 언어 교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주제 및 기능, 활용, 관용 표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학습자는 주제를 통해 스키마를 활성화시킨다. 주제에 대한 스키마 형성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관용 표현의 제3의 의미에 대해 추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학습자에게 다소 낯선 관용 표현이라 할지라도 쉽게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6개 기관의 교재에³²⁾ 나타나는 주제와 기능을 선별한다. 그리고 안경화 외의³³⁾ 논의를 참고하여 주제와 기능을 재배열한다.

이는 현행 교재의 주제 및 기능에 대한 교수요목의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은 채 관용 표현과 연결한다면 목록의 체계성과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초급, 중급, 고급의 등급 기준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 기준표를³⁴⁾ 참고한다. 한국어능력시험 등급 기준표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의 급수에 맞는 주제와 기능을 분류하였다.

32) 총 6개의 초급, 중급, 고급 교재에서 주제 및 기능을 추출하였다. 교재는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건국대학교이다.

33) 안경화 외(2000)에서는 학습자의 요구 조사를 통하여 교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와 기능의 부족한 부분을 첨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요구가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반영하기로 한다.

34)

[표 22] 한국어능력시험 등급 기준표

등급	평가기준
초급	1급 • 자기 소개하기, 물건 사기, 음식 주문하기' 등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 가족, 취미, 날씨' 등 매우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 약 800개의 기초 어휘와 기본 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단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 • 간단한 생활문과 실용문을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다.
	2급 • '전화하기, 부탁하기'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우체국, 은행'등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약 1,500~2,000개의 어휘를 이용하여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해 문단 단위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 공식적 상황과 비공식적 상황에서의 언어를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중급	3급 •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다양한 공공시설의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초적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친숙하고 구체적인 소재는 물론 자신에게 친숙한 사회적 소재를 문단 단위로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 • 문어와 구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4급 • 공공시설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 뉴스, 신문 기사'중 평이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일반적·사회적·추상적 소재를 비교적 정확하게 유창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 자주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과 대표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고급	5급 •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 할 수 있다.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관해서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 공식적, 비공식적 맥락과 구어적, 문어적 맥락에 따라 언어를 적절히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6급 •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비교적 정확하게 유창하게 수행할 수 있다.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주제에 관해서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 원어된 화자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나 기능 수행이나 의미 표현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1. 주제 및 기능과 관용 표현의 연계 기준

앞서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주제와 기능을 선별하여 관용 표현과 연결한다. 주제 및 기능과 관용 표현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인상적인 분류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연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박소연(2007)³⁵⁾을 참고하여 주제 및 기능의 관용 표현 연결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연결하였다.

첫째, 관용 표현이 가진 의미³⁶⁾에 따라 주제와 연결한다.

-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다

주제: 시간

기능: 시간의 경과 표현하기

관용 표현의 의미: 몹시 애타게 오랫동안 기다리다.

- 쥐도 새도 모르게

주제: 분실

기능: 분실물 찾기 / 시간의 경과 표현하기

관용 표현의 의미: 감쪽같이 행동하거나 처리하여 아무도 그 경위나 행방을 모름.

- 눈살을 찌푸리다

주제: 인터넷 / 사회문제

기능: 불만족스러움 표현하기

관용 표현의 의미: 마음이 못마땅한 뜻을 나타내어 양미간을 찡그리다.

둘째, 관용 표현이 사용될 대화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관용 표현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될 때, 화자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관용 표현은 주로 문어체보다는 구어

35) 박소연(2007), 「한국어 관용 표현의 교수·학습 모형 연구」,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36) 관용 표현이 가진 제3의 의미는 박영준·최경봉 『관용어 사전』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와 예문을 바탕으로 하였다.

체에 많이 쓰이고, 격식체보다는 비격식체에서 많이 쓰이며, 공적인 대화보다는 사적인 대화에서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다.(문금현 1999:122) 이러한 구어체적인 관용 표현을 이용하여 가공하지 않은 실제적인 대화문을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 한턱 내다 : 주제- 약속, 기능- 약속하기/제안하기
 - ㉠ 김 과장님, 승진 축하드려요.
 - ㉡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한 턱 내지**요.
- 간이 콩알만해지다 : 주제- 감정/사건 , 기능- 놀라움 말하기/
감정 표현하기
 - ㉢ 너 영화 ‘링’ 본 적 있니?
 - ㉣ 응, 귀신이 갑자기 나오는 장면에서 **간이 콩알만해졌**지 뭐야.

셋째, 기능은 과제부분에서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과제는 앞 단계에서 연습한 관용 표현을 이용하여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실제 의사소통을 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말하는 과제는 단원의 구성 요소이고, 실제 수업단계로 보면 활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원의 기능과 과제가 이어져 확장한 관용 표현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 관용 표현: **손을 보다**
 - 주제: 고장/ 수리
 - 기능: 수리 요청하기
 - 과제1 : 고장 난 기계 수리 요청하는 이야기하기
 - 기계가 고장 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 이야기하기
 - 과제2 : AS센터 직원과 고객의 역할극
- 관용 표현: **바가지 쓰다**
 - 주제: 여행
 - 기능: 경험 말하기/ 물건 사기
 - 과제1: 물건 값을 비싸게 구입한 경험 말하기
 - 과제2: 가 본 여행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2. 주제 및 기능과 관용 표현의 연계 목록

교재에 나타난 급별 주제와 기능을 재분류하여 관용 표현과 연계성을 가진 목록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목록에는 관용 표현에 대응되는 주제와 기능의 설정은 일대일 대응 관계로 놓지 않았다. 이는 관용 표현이 가진 의미에 대응하여 가르칠 수 있는 주제와 기능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또 주제와 기능이 여러 관용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급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제 및 기능과 연결되는 관용 표현 목록은 [표 23]과 같다.

[표 23] 초급 단계 주제 및 기능과 관용 표현

번 호	관용 표현	주제	기능
1	귀가 얇다	권고/쇼핑	권유하기/ 설득하기
2	눈이 높다	인물	개인의 취향 이야기하기/ 인물 표현하기
3	마음에 들다	인물	성격 표현하기/ 인물 표현하기
4	마음을 먹다	계획	계획 세우기/ 의지 표현하기
5	마음이 넓다	성격	성격말하기/ 칭찬하기
6	마음이 통하다	감정	감정표현하기
7	발이 넓다	초대/관계	초대하기
8	손이 크다	초대/성격	초대하기/ 성격 표현하기/ 인물 비교하기
9	입에 맞다	요리	개인의 취향 말하기/ 음식 소개하기
10	입이 가볍다	성격/약속	성격 표현하기/ 인물 비교하기/ 충고 및 조언하기/ 실수 말하기
11	입이 무겁다	성격/약속	성격 표현하기/ 인물 비교하기/ 충고 및 조언하기/ 실수 말하기
12	첫눈에 반하다	만남	인물 표현하기/ 묘사하기
13	한 잔 하다	약속	약속하기/ 제안하기/ 허락하기/ 거절하기
14	한턱 내다	약속	약속하기/ 제안하기

초급 단계에서의 관용 표현은 2급에서 제시되는 주제와 기능을 설정하였다. 학습자의 가까운 주변상황을 시작으로 친숙한 화제에 관해 문단 단위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주제와 기능을 설정하였다. 가령 쇼핑, 만남, 성격, 초대와 같은 것들이다. 관용 표현의 의미와 연계될 수 있는 주제와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음을 먹다: [어떤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의 의미를 가진 관용 표현이므로 의지와 관련된 ‘계획’의 주제에 어울리는 관용 표현이다.

귀가 얇다 : [남의 말을 쉽게 받아들인다]의 의미를 가진 관용 표현으로서 ‘권고’/ ‘쇼핑’과 같은 주제에 어울리는 관용 표현이다.

손이 크다 : [씀씀이가 후하고 크다]의 의미를 가진 관용 표현으로서 ‘초대’/ ‘성격’과 같은 주제 상황에 어울리는 관용 표현이다.

[표 24] 중급 단계 주제 및 기능과 관용 표현

번호	관용 표현	주제	기능
1	가슴이 뜨끔하다	규칙과 위반/감정	감정 표현하기/경험 말하기/ 놀라움 표현하기
2	가슴이 찡하다	감정/영화감상	느낌 표현하기/ 자신의 감정 말하기
3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결혼	결혼 풍습 이해하기
4	귀가 가렵다	소문	경험 말하기/추측 표현하기
5	귀에 거슬리다	다툼	불만족스러운 표현하기
6	그림의 떡	남녀 문제/희망	가치 표현하기/ 불가능 표현하기/ 포기하는 의사 표현하기/ 희망 표현하기
7	김새다	감정/월급	중단 표현하기
8	꿈도 못 꾸다	쇼핑/여가	예상 밖의 일 표현하기
9	나이를 먹다	명절/떡국	경험 말하기/ 시간의 경과 표현하기
10	낮이 뜨겁다	감정	감정 표현하기/ 경험 말하기/ 후회하는 일 말하기
11	눈 감아 주다	일상문제	변명하기/ 도움 주기/ 거짓된 행동 말하기

12	눈에 띄다	쇼핑	강조해서 표현하기/ 경험 말하기
13	눈에 선하다	감정/남녀관계	감정 표현하기/ 경험 말하기/ 인물 묘사하기
14	눈을 감다	노인문제	완곡하게 표현하기
15	눈을 돌리다	직업과 적성	관심 말하기/ 충고 및 조언하기/ 행동의 전환 표현하기
16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다	시간	경험 말하기/ 시간의 경과 표현하기/ 강조해서 표현하기
17	눈코 뜰 새 없다	상황	경험 말하기/ 상황 설명하기/ 긴박하게 연결된 상황 표현하기
18	땀을 흘리다	발표/부탁과 거절	시간의 경과 이야기하기/ 망설임 표현하기/ 거절 표현하기
19	매를 들다	세대차이/ 일상생활	경고하기/ 경험한 일 표현하기
20	머리를 식히다	직장/여행/ 휴식	근심 걱정 말하기/ 과정의 어려움 표현하기
21	뭉니 뭉니 해도	음식/감정	생각을 강조해서 말하기
22	배가 아프다	대인관계	경험 말하기/ 불평하기
23	상다리가 부러지다	초대/한국의 음식	강조해서 말하기/ 비유 표현하기
24	손가락질을 받다	함께 사는 사회/ 장애인	사고 방식 비교하기/ 사회 현상 말하기
25	손꼽아 기다리다	인연	지속 표현하기/ 희망 표현하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말하기
26	손을 놓다	방법/난민문제	중단 표현하기
27	손을 보다	고장 · 수리	수리 요청하기/ 고장 설명하기
28	손이 가다	관심/요리	관심 표현하기/ 상황 설명하기/ 경험 말하기
29	식은 죽 먹기	사건/환경	개인의 능력이나 재능 말하기/ 감탄 표현하기/ 도움주기/ 요청하기
30	신경을 쓰다	관심	관심 표현하기/ 경험 말하기/ 성격 표현하기/ 충고하기
31	얌느니 죽지	부탁	심정 토로하기
32	어깨가 무겁다	직장/진급	감정 말하기/ 고민 표현하기/ 부담감 표현

			하기
33	얼굴이 두껍다	음주문화/ 사고 방식	사고 방식 비교하기/ 성격 표현하기/ 인물 비교하기
34	입이 짧다	습관	습관 말하기/ 인물 표현하기
35	자리를 잡다	직업과 적성/결혼	가까운 미래 표현하기/ 가정 표현하기/ 계 획 말하기
36	취도 새도 모르게	분실	시간의 경과 표현하기/ 긴박하게 연결된 상황 표현하기/ 분실물 찾기
37	피부로 느끼다	직업과 적성/경험	경험말하기
38	하늘의 별 따기	직업과 적성	사회 현상 말하기/ 불가능 표현하기
39	한잔 사다	약속/ 한국의 음주문화	권유하기/ 사회적인 약속 알기
40	한숨을 돌리다	부탁/사건	경험말하기

중급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주제와 다양한 공공시설의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주제와 기능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뉴스, 신문, 기사 중 평이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 기준을 바탕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중급 단계에서 관용 표현과 어울리는 주제는 감정, 관심, 부탁, 쇼핑 직업과 적성, 직장 등이 도출 되었다. 같은 주제에 배치된 관용 표현은 예시문 외에도 활동부분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손을 보다: [1. 고치다/ 2.폭행하다, 때려주다, 버릇을 고쳐주다]의 의미를 가진 관용 표현이다. 1번의 의미는 ‘고장’, ‘수리’와 같은 주제와 어울리는 관용 표현이다.

상다리가 부러지다: [상에 음식을 매우 많이 차려 놓다]의 의미를 가진 관용 표현으로서 한국의 식(食)생활과 관련된 관용 표현이다.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한국인들의 식문화의 단편적인 생활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초대’, ‘한국의 음식’과 같은 주제와 연결된다.

입이 짧다: [음식을 심하게 가리거나 적게 먹다]의 의미를 가진 관용 표현으로 ‘습관’에 관련된 주제와 어울리는 관용 표현이다.

[표 25] 고급 단계 주제 및 기능과 관용 표현

번호	관용 표현	주제	기능
1	가시방석에 앉다	감정/시험	감정 표현하기/ 경험 말하기/ 상황 설명하기
2	간이 콩알만 해지다	감정/사건	놀라움 말하기/ 감정 표현하기/ 강조해서 표현하기/ 긴박하게 연결된 상황 표현하기
3	골치가 아프다	후회/걱정	감정 표현하기/ 걱정 표현하기/ 고민 말하기
4	국수를 먹다	결혼	결혼 풍습 이해하기
5	굴뚝같다	꿈/소망	소망 표현 말하기
6	귀에 못이 박히다	감정	감정 표현하기/ 불평하기/ 강조해서 말하기
7	금강산도 식후경	여가/여행	제안하기/ 권유하기
8	기가 막히다	환불	감정 표현하기/ 경험 말하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표현하기
9	김치국부터 마시다	복권/부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표현하기/ 빗나간 상황 이야기하기
10	깨가 쏟아지다	결혼	결혼 풍습 이해하기
11	꼬리에 꼬리를 물다	찬반토론	토론하기
12	꿀 먹은 병어리	찬반토론	의도/ 의지를 나타내기
13	날개가 돋치다	쇼핑	물건사기/ 경험 말하기/ 강조해서 표현하기/ 상황 설명하기
14	내 코가 석 자	부탁	걱정 표현하기/ 거절하기
15	냄새를 맡다	사건	경험 말하기/ 상황 설명하기/ 추측하기
16	눈살을 찌푸리다	사회문제/인터넷	불만족스러움 표현하기
17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모양	묘사하기/ 반응 표현하기
18	눈에 불을 켜다	여가와 레포츠	관심 표현하기
19	담을 쌓다	인터넷/이웃	상황 설명하기/ 후회하는 일 말하기/ 경험

			말하기
20	도마 위에 오르다	찬반토론	사회현상 말하기/ 사고 방식이해하기/ 실수말하기
21	도토리 키 재기	모양/외모	가치 표현하기/ 충고 및 조언하기/ 비교 설명하기
22	들통이 나다	규칙위반/사건	보도문 알아보기
23	땀을 흘리다	규칙위반	결과 표현하기/ 보도문 알아보기
24	몸살을 앓다	환경문제	상황 표현하기
25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다	취미	반복 표현하기
26	물불을 가리지 않다	성격	심정 토로하기/ 정도 표현하기/ 위급한 상황 대처하기
27	바가지 씌우다	쇼핑/일상생활	경험 말하기/ 물건사기/ 불만족스러운 선택 말하기
28	바가지를 긁다	여행	경험 말하기/ 불평하기/ 성격 표현하기/ 인물 표현하기
29	바가지를 쓰다	여행	경험 말하기/ 물건사기/ 불만족스러운 선택 말하기
30	바람을 맞다	약속	경험 말하기/ 상황 설명하기/ 경고, 주의 표현하기/ 변명하기/ 약속 정하기
31	바람을 피우다	남녀 문제	상황 설명하기/ 토론하기/ 경험 말하기
32	발 뺀고 자다	여유	경험 말하기/ 비교 설명하기/ 감정 표현하기/ 상황 설명하기
33	발(을) 벗고 나서다	개인과 공동체	적극적인 의도 표현하기/ 태도 성격 표현하기
34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여유	상황 설명하기/ 걱정 표현하기/ 긴박하게 연결된 상황 표현하기
35	발목을 잡다	직장/ 업무	경험 말하기/ 거절하기
36	배꼽을 잡다	감정	즐거움/ 좋아함 말하기
37	비행기를 태우다	대인관계	칭찬하기
38	뿌리 뽑다	사회문제/사고방식	사회문제에 대해 인식하기/ 사고 방식에 대해말하기
39	속을 태우다	감정	감정 표현하기/ 걱정 표현하기

40	손발이 맞다	우정	상황 설명하다/ 경험 말하기/ 인물 비교하기
41	손에 땀을 쥐다	여가와 레포츠	감정 표현하기/ 경험 말하기/ 긴박하게 연결된 상황 표현하기
42	손을 대다	인터넷/사건	관심 나타내기
43	손이 발이 되도록 빌다	후회	사과하기
44	시치미를 떼다	사건	변명하기/상황 설명하기
45	애가 타다	감정	위급한 상황 대처하기
46	애를 먹다	감정	감정 표현하기/경험 말하기
47	어처구니가 없다	실수	자신의 감정 말하기
48	우물 안의 개구리	사고 방식	경험 말하기/ 사고 방식 표현하기/ 충고하기
49	이 잡듯이 뒤지다	사건	정보 구하기/ 조사 결과 표현하기
50	입에 침이 마르도록	대인관계	강조해서 표현하기/회상하기
51	젓 먹은 힘까지 다 낸다	다이어트	비유해서 말하기/ 경험 말하기
52	제 눈에 안경이	남녀 문제	개인의 취향 말하기/ 사고 방식 비교하기/ 인물 비교하기
53	제 살 깎아 먹기	후회	경험 말하기/ 후회하는 일 말하기
54	찬물을 끼었다	칭찬	상황 설명하기/ 불평하기/ 사회 현상 이해하기
55	코가 납작해진다	대인관계	경험 말하기
56	콧대가 높다	남녀 문제	성격 표현하기
57	파김치가 되다	직장	경험 말하기/ 상황 설명하기
58	풀이 죽다	직업과 적성	상황 설명하기/ 걱정 표현하기/ 도움주기/ 요청하기
59	한 눈 팔다	약속	경험 말하기/ 성격 표현하기
60	허리띠를 졸라매다	생활의 지혜	상황 설명하기/ 성격 표현하기/ 충고 및 조언하기/ 사고 방식 비교하기

고급 단계에서는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방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 기준을 전제로 주제의 목록을 구성하였다.

주제는 사건, 사회문제, 사고 방식, 결혼, 찬반 토론, 여행 등과 같은 항목을 중점적으로 설정하였다.

도마 위에 오르다: [어떤 사물이 비판의 대상이 되다]의 의미로 ‘찬반토론’에 어울리는 관용 표현으로서 사회현상 말하기와 같은 기능으로 연결된다. 더불어 활용 부분에서는 사회현상에 대한 찬반토론과도 확장시켜 연결할 수 있다.

애가 타다: [안타깝거나 초조하다]의 의미로 걱정이나 초조한 느낌의 주제를 포괄할 수 있는 ‘감정’으로 선정하였다.

본고에서는 관용 표현의 의미에 따라 유기적인 연계 가능성이 있는 주제와 기능을 선정하여 연결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관용 표현과 주제 및 기능은 관용 표현이 가진 의미에 따라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며 절대적이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현행 교재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과 향후 교재에서 반영되어야 할 단원의 주제와 기능을 관용 표현과 유기적인 연계성이 있는 목록을 제안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는 바이다.

제 3 절 관용 표현의 단원 구성

본 장에서는 교재의 교수요목 모형과 단원 구성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재의 교수요목 모형은 주제와 기능, 과제가 서로 이질적이지 않으며, 관용 표현이 가진 의미와도 함께 부합되어야 한다. 김정은(2005)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개발을 위한 교재의 교수요목으로 혼합 요목을 채택하고, 단원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논의는 교재의 전체적인 단원 구성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단원의 유기적인 결합이 필요하다

는 점을 받아들여 관용 표현의 단원 제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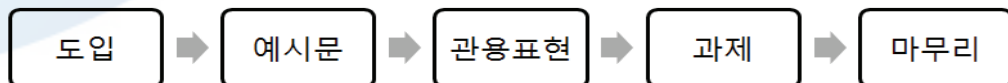
1. 관용 표현의 교재 모형 설계

본 단원의 구성 중 여러 요소의 개념을 일괄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주제’는 단원의 제목을 말한다. ‘기능’은 과제 수행을 위한 의사소통 목적을 말하며, ‘과제’는 앞서 제시한 기능 수행에 초점을 둔 의사소통 활동이란 뜻으로 사용한다.

본문에서는 단계적으로 학습 목표의 성취에 필요한 가공하지 않은 실제적인 예시문으로 구성하며 주제와 관련된 관용 표현을 함께 제시한다.³⁷⁾

실제적인 단원 구성에는 단원의 제목과 학습목표를 제시하도록 한다. 실제 수업에서 제목의 노출은 [도입 1]에 해당된다. [도입 2]는 학습목표 제시와 함께 이루어진다. 이때 목표는 수행 목표와 과제 목표로 나눌 수 있다. 단원은 실제 수업 단계와 마찬가지로 총 5단계로 구성이 된다. 교재의 단원 구성은 아래의 <그림 11>과 같이 5개의 분류로 나누어진다.

<그림 11> 관용 표현의 단원 구성



[도입]에서는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고취하고 학습 내용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진과 같은 이미지 자료와 함께 이에 관련된 몇 개의 질문으로 구성한다. [예시문]에서는 단원의 목표를 간단하게 보여주고 가공하지 않은 실제적인 대화문 모형을 제시하도록 한다. [관용 표현]에서는 [예시문]에 제시되었던 관용 표현에 대한 제3의 의미를 파악하고 유의 관용 표현/반의 관용 표현을 학습한다. [과제]는 앞에서 다룬 관용 표현을 이용하여

37) 본고에서는 관용 표현에 초점을 두고 교재 구성에 목표를 두므로, 단원 구성에 어휘, 문법, 발음 등의 요소는 제외하기로 한다. 다만 예시문의 제시에는 단계별 문법의 난이도와 어휘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배치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실제 의사소통과 유사한 활동을 하게 하는 활동이다. 여기에는 언어 통합 활동을 제시한다. 각 개별적인 언어 기술 활동이 아닌 연계 활동을 통한 언어 통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습시킨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학습한 내용에 대해 학습자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위와 같이 단원 구성 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제에 맞추어 단원 구성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중급을 대상으로 ‘사회 현상’³⁸⁾에 대한 주제로 단원 구성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4.2의 주제 및 기능과 관용 표현을 연결한 목록을 바탕으로 교수요목과 단원 구성 모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① 교수요목 모형

- 주제: 사회 현상
- 기능: 사회 현상 말하기
- 과제: 뉴스를 보고 실업난에 대한 사회현상에 대해 토론하기
- 관용 표현: 본문- 하늘의 별따기, 피부로 느끼다
활용- 자리를 잡다, 눈을 돌리다, 식은 죽 먹기

② 단원 구성 모형

- 제목: 취직은 하늘의 별 따기
- 학습목표: 수행목표- 현재 한국사회에서의 청년 실업난에 대한 사회 현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과제목표- 뉴스를 보고 현재 실업난의 상태와 이로 인한 사회 현상에 대해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토론한다.

38) 안경화 외 2(2000)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중 학습자의 요구 조사를 통한 결과 중 중·고급 응답자는 통제된 교육 자료 못지않은 실제적인 읽기 자료를 선호하여 여러 자료 중에서 잡지나 신문 등을 가장 다루고 싶은 자료로 꼽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인 자료 중 하나인 뉴스 기사를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생각해보기



- 1 현재 한국에서 취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2 취업에 대한 걱정을 해 본 적 있나요?

- 예시문 (과제 수행에서의 의사소통 목적)

들어보기

앤드류 : 앤드류 씨. 대학교를 졸업하면 무엇을 할 거예요?

사유리 : 글썄요. 한국 무역회사에 들어갈까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앤드류 : 그러게 말이에요.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많았던데.....

사유리 : 저도 이 회사 저 회사 알아보고 있는데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힘들어요.

앤드류 : 그럼 **눈을 돌려서** 대학원에 진학하는 건 어때요?

사유리 : 한국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아무래도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마음먹은 대로** 회사에 들어가려고 계획 중이에요.

1 한국에서 직장 구하기가 어떻습니까?

()

2 사유리 씨는 대학 졸업 후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

- 관용 표현

연습하기

< 보 기 >

A: 요즘은 대학교 졸업하고도 취업하기가 힘들어요.

B: 그러게.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니까.

< 보 기 >와 같이 아래의 단어를 사용하여 빈칸을 넣어 보세요.

교실 전세방 장학금 택시 공원

1. A: 요즘 서울에서 _____ (구하다) 힘들어요.

B: 그러게. _____ 하늘의 별 따기라니까.

2. A: 오늘도 시험을 망쳤어요. _____ (타다) 힘들어요.

B: _____ 하늘의 별 따기구나.

3. A: 요즘은 버스나 지하철이 더 빠른 것 같아요. 택시잡기가 힘들어요.

B: _____.

피부로 느끼다. 식은 죽 먹기. 자리를 잡다. 눈을 돌리다.

4.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이 _____.

5. 현재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_____ 없습니다.

6. 김동수 씨는 졸업하자마자 회사에 _____.

• 과제 1 (취업난에 대한 뉴스보기⁴⁰⁾)

은행권 취업

㉠



대졸자들이 선호하는 은행권 취업이 높은 경쟁률로

㉠

가 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올해 100명을 채용하는 신입직원 모집에 1만1003명이 몰려 1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의 신입직원 채용에서는 200명 모집에 2만1456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07대 1로, 작년(93대 1)보다 높아졌다.

우리은행의 신입직원 모집 경쟁률도 88대 1을 나타냈다. 250명을 채용하는 신입직원 모집에 2만350명이 지원

했다.

하나은행의 신입직원 채용에서도 200명 내외 모집에 1만7700명이 지원해 88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었다. 올해 400명을 뽑는 신한은행의 신입직원 채용 경쟁률은 50대 1이었다.

또 취업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은행 지원자들의 자격 조건도 높아지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취업하기가 어렵다 보니 지원자들의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며 "올해 지원자들의 특징을 보면 금융관련 자격증이 있는 지원자들이 많다. 그리고 외국어 수준도 영어는 기본으로 하면서 중국어와 같은 제2외국어를 잘하는 지원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원자들의 수준이 뛰어나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은행에 맞는 인성이 있는가를 주로 본다"고 말했다.

대다수 은행들은 이번주까지 면접을 진행한 뒤 다음주에 최종 채용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40)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595974>이 텍스트는 중급 대상인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사진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0081637>

1. 뉴스 기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직장 구하기는 식은 죽 먹기다.
- ②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다.
- ③ 지원자들은 모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 ④ 영어를 잘 하는 지원자는 눈을 돌리고 있다.

2.

㉠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관용 표현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손을 놀다
- ② 식은 죽 먹기
- ③ 하늘의 별 따기
- ④ 피부로 느끼다

3.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
• 컴퓨터 자격증 • • •

- 과제 2

1. 자기소개서를 써 보세요.

2. 짝과 함께 인사 담당자 VS 구직자가 되어보세요.

	인사 담당자 (질문하세요)	구직자 (대답하세요)
1	<보기> 자기소개를 해 보세요.	
2		
3		
4		

- 마무리/ 자기 평가 (8번째 단계)

Q: 이 단원에서 배운 관용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였습니까?

Q: 학습한 관용 표현의 의미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3-2-1)

(3점 : 할 수 있다. 2점: 보통이다. 1점: 부족하다.)



2. 관용 표현의 교수 · 학습 모형

본 절에서는 4장 2절에서 제시한 주제, 기능, 활용, 관용 표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단원 구성을 바탕으로 실제 교수 · 학습지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수 · 학습 지도안은 단원의 구성과 마찬가지로 5단계로 설정된다. 5단계는 [도입] - [제시] - [발전] - [활용] - [정리]로 한 차시 분량을 제시한다. 교수 · 학습 지도안의 실례는 다음과 같다.

[표 26] 한국어 교수 · 학습지도안

차시	4/4차시 (과제 1)
대상(급/명)	4급
단원명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
학습목표	1. 사회 현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2. 현재 취업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토론할 수 있다.
학습내용	관용 표현 하늘의 별 따기, 식은 죽 먹기, 피부로 느끼다, 눈을 돌리다, 자리를 잡다
학습자료	멀티미디어 자료, 컴퓨터, 교재

(T: 교사, S: 학생)

학습 단계	학습 내용	교수 · 학습활동
도입	인사 복습	- 인사 및 출석 확인 - 전 차시 복습 연습에서 익힌 관용 표현을 상기 시킨다. [유의점] 학생들을 두루 살펴보며 이야기한다.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 동기유발 T: 여러분은 4급을 마치면 무엇을 할 생각이예요? S: 대학원 진학이요 / 일을 할 거예요 T: 요즘은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다고 해요.

		S: 맞아요. T: 현재 한국에서는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을 못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언어공부나 자격증을 많이 준비한답니다. '스펙 쌓기'라고도 해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S: 취직하기 힘들어요. 걱정이예요. T: 네, 오늘은 한국의 취업에 관한 뉴스를 듣고 이야기해 보기로 해요.
제시	• 오늘 배울 내용 제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558963 연합뉴스 2007년 2월 27일자) 듣기 전 단계 T: 이 사진을 보세요.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S: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것 같아요. T: 네,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시위를 하는 장면이에요. 요즘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든 일이라는 걸 사진을 보니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취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해요. [유의점]오늘 배울 학습 내용과 관용 표현에 대해 인지시킨다. 사회현상을 토론할 기회가 됨을 주지시킨다.	
발전	• 과제 1 듣고 말하기 (P6) T: 뉴스를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뉴스인지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면서 보도록 하세요. ❶ 전체 뉴스 보기 T: 무엇에 관한 내용이었지요? S: 은행에 취업하기가 힘들어요. T: 네, 맞아요. 경쟁률이 높지요? OO 씨, 메모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듣기 후 단계	S: (대답한다) T: 네, 좋습니다. 요즘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하죠? 지원자들이 많다보니 스펙이 높아졌다고도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피부로 느껴지네요. 다시 자세히 들어 보세요. ② 스크립트 제시 - 빈칸이 있는 스크립트 나누어 준다. T: 잘 보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 뉴스 다시 재생 ③ 부분 보기 빈 칸이 있는 부분을 교사가 발화하도록 함. 학생들은 못 채운 부분을 마저 완성하도록 함. ④ 스크립트와 비교해서 보기(3회 재생) - 뉴스 전체 재생 T: 빈칸이 맞게 썼는지 뉴스와 비교해서 보도록 하세요. ⑤ 문제 풀기 1~3번 문제 풀기 문제에 제시된 관용 표현에 대해 설명하기 1~3번 답 맞춰보기 ‘하늘의 별 따기’와 ‘식은 죽 먹기’에 대한 반의적 관용 표현의 의미에 대해 학습자에게 인지시킨다.
활용	토론 하기	• 활용 T: 여러분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든 일이 무엇이었나요? S: 진급하는 게 힘들었어요./ 시험 통과하는 게 힘들었어요. T: 그렇군요.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① 취업난에 대한 입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하도록 한다. T: 취업이 힘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② 토론자를 선정 교사는 뒤에서 짚막한 진행 역할만 한다. ③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토의하기 ④ 의견을 정리하고 마무리 짓는다.

	마무리	[유의점] 사진 매체를 통해 학습자가 토론할 때에 흥미거리를 제공한 다음 학생들의 열띤 토론을 하도록 진행시킨다. [유의점] 교사는 학생들의 토론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여 판서하도록 한다.
정리	과제 제시 다음 차시 예고	• 정리 T: 오늘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취직에 관한 사회 현상에 대해 토론해 보았습니다. • 과제 [유의점]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과제를 하도록 부여한다. • 정리

[표 26]은 한국어 관용 표현을 교육함에 있어 수업 시간을 분리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수업 중에 관용 표현을 자연스럽게 연계하여야 함을 반영한 교수 지도안의 실례이다. 교수·학습 지도안의 구성은 5단계로 도입, 제시, 발전, 활용, 정리로 한 차시 분량을 제시하였다.

도입 단계에서는 향후 진로 문제에 대한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현재 한국의 취업난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본 차시에 학습하게 될 내용에 대해 상기시킨다. 그리고 본 차시 목표에 대해 언급한다.

제시 단계에서는 취업난에 관한 사진을 제시하고, 어떤 상황인지 학생들의 대답을 이끌어낸다. 대화를 통해 교사는 본 차시에 학습할 내용을 학생들에게 인지시킨다. 또한 교사의 메타발화를 통하여 학습하게 될 관용 표현에 대해 재차 언급한다.

발전 단계에서는 전체 뉴스를 보고 학습한다. <과제 1>의 뉴스 지문을 이용한다. 그 자료 가운데 나오는 유의, 반의 관용 표현을 사용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이 때 학습자는 관용 표현에 대한 이해와 사용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연습활동이 가능하다.

활용 단계에서는 앞서 연습한 관용 표현을 실제 의사소통과 유사한 활동을 해보는 단계이다. 이 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언어 기술 활동

간 통합이나 연계활동을 통해 각 언어 기술 별 통합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가 이끌어야 한다.

정리 단계에서는 학습자 스스로 단원의 주제에 관련된 관용 표현의 의미를 이해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그리고 <과제 2>에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한 번 단원의 학습 목표와 관련된 내용을 익혔는지 확인하고 진단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어 교재에 나타나는 관용 표현을 제시하고, 단원의 주제와 기능이 관용 표현과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단원의 구성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한국어 교육에서 관용 표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한국어 교재에서는 관용 표현에 대한 비중이 크지 않다. 또한 그 구성 또한 체계적이지 않아 효과적인 관용 표현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한국어교재에서 제시된 관용 표현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교재는 총 5개 기관에서 발행된 교재로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의 교재이다.

교재 분석 결과 및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재마다 배치된 관용 표현의 양의 차이가 있다. 둘째, 교재마다 관용 표현의 급수별 양상이 불일치한다. 셋째, 단원의 주제 및 기능과 관용 표현의 연계성이 없다. 넷째, 관용 표현의 제시 방법의 적절성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활동에서의 관용 표현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급, 중급, 고급의 단계화 기준을 설정하여 관용 표현 목록을 구성하였다.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관용 표현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제교육진흥회의 『속담 100 관용어 100』, 문금현(1999)의 관용 표현 목록, 김선정·강현자(2006)에서 제시한 관용 표현 목록과 5개 대학기관의 한국어교재를 토대로 관용 표현을 선정하고 등급화 하였다. 위의 절차를 통해 초급, 중급, 고급에 이르는 총 114개의 관용 표현을 최종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단계별 관용 표현 목록을 바탕으로 각 급수에 상정된 주제 및 기능과 관용 표현의 유기적인 연결을 시도하였다. 이는 향후 교재에 단원의 주제 및 기능과 관용 표현의 유기적 연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조명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고는 단원과 관용 표현과의 연계 모형 설계

를 시도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바이다. 본 연구를 통해 외국인 학습자는 관용 표현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담화 내에서 추론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습자들이 관용 표현의 의미 관계를 통해 다양한 맥락에서 관용 표현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다만, 한국어교육용 관용 표현을 선정하고 등급화함에 있어 교사 그리고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점, 보다 폭넓은 자료를 대상으로 선별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관용 표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한국어 교육에서 다소 체계적이지 못하게 다루어져 왔던 관용 표현의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재조명하였다. 또한 주제와 기능 그리고 관용 표현의 연계에 대한 시도로 연구 폭을 넓히려고 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기초 자료

[한국어 교재]

-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2005), 『한국어』 1 - 5 , 건국대학교출판부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 교육부(2000), 『한국어』 1 - 6, 경희대학교출판부
-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2000), 『한국어』 1 - 4, 문진미디어
- 성균어학원(2006), 『배우기 쉬운 한국어』 1 - 6,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연세대학교한국어학당(2008), 『연세한국어』 1 - 6, 연세대학교출판부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04), 『말이 트이는 한국어』 I - V,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 국내문헌

- 강현화(2004), 「한국어 회화에 나타난 어휘 분석」, 『비교문화연구』 8,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상)」, 두산동아
- 권경일(2008), 「한국어 관용구의 개념과 범위」, 『교육연구』 16, 한남대학교 교육연구소
- 권순영(2005), 「한국어 감정관련 관용 표현의 수업지도 방안」,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오경(2009),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 내용 구축 방안」, 『언어와 문화』 5집,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김문창(1974), 「국어 관용어의 연구」, 국어연구 30,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2003), 「한국어 관용 표현 연구 약사」, 『한국어 의미학』 13, 한국어의미학회

- 김민수 외 3(1992), 「금성관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 김부경(2005),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용어 교육 방안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정·강현자(2006), 「한국어 관용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및 단원 제시」, 『이중언어학』 제 32호, 이중언어학회
- 김은화(2008), 「중국인에 대한 한국어 속담과 관용어 교육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155집,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 김정은(2005), 「단원의 구성과 전체적 유기성 관점에서의 한국어 교재 분석」,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2』, 한국외국어교육학회
- 김제열(2004), 「고급한국어 문법 교수요목의 개발 방안」,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진해(2003), 「관용어의 직설의미와 관용의미의 관계 연구」, 『한국어의 의미학』 13, 한국어의미학회
- 김현진(2006), 「한국어 관용 표현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1992), 「익은말의 용어 및 개념 규정」, 『東國語文論集』 제5집, 동국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 문금현(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 표현의 교육」, 『이중언어학』 제15호, 이중언어학회
- _____(1999),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國語學會
- _____(2000), 「구어적 관용 표현의 특징」, 『언어(Linguistic journal of Korea)』 25, 한국언어학회
- 민현식(2000), 「한국어 교재의 실태 및 대안」, 『국어교육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_____(2003), 「관용 표현의 범위와 유형에 대한 재고」, 『한국어의 의미학』 12, 한국어의미학회
- 박만규(2003), 「관용 표현의 범주적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국어학』 41, 국어학회

- 박소연(2007), 「한국어 관용 표현의 교수·학습 모형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순(1985), 「관용어에 대하여」, 『국어교육』 53,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박영준·최경봉(1996), 『관용어 사전』, 태학사
- 박진수(1985), 「국어 관용어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진호(2003), 「관용 표현의 통사론과 의미론」, 『국어학』 41, 국어학회
- 방성원(2000), 「통합 교수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한국어교육』 1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송혜원(2005), 「한국어 교재의 관용 표현 분석과 지도 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기철, 신용철 편저(1992), 「새 우리말 큰사전(상)」, 삼성출판사
- 신혜인 (2010),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 표현 및 교육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재기(1986), 「한국어 관용 표현의 화용론적 연구」, 관악어문연구
- _____(2003), 「한국 문화와 관용 표현」, 『한국어 의미학』 13, 한국어의미학회
- 안경화 외 2(2000), 「학습자 중심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향에 대하여」, 『한국어 교육』 1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안경화(2007), 『한국어 교육의 연구』, 한국문화사
- 안영수(2008), 『한국어 교재 연구』, 도서출판 하우
- 우형식·배도용(2009),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어휘의 이해』,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윤택자(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어 교육」,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지훈(2007), 「외국어로서 한국어 어휘 지도 방안 -관용 표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동규(2005),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어휘교육 -속담관용어 교육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혜(2004),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통합 교육」, 『한국언어문화학』

1집,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이상억(1993), 「관용 표현과 합성어의 분석 및 어휘부 내외에서의 처리」, 『語學研究』 29,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이윤표(2009), 「한중 관용어 표현의 대조적 연구」, 『한국어학』 44, 한국어학회
- 이은희(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어 교육』 9,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희승 편저(1994), 「국어 대사전」, 민중서림
- 이희자(1995), 「현대 국어 관용구의 결합 관계 고찰」, 『大東文化研究』 3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임지룡(2009),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 임혜진(2007), 「학습자 수준별 관용 표현 교수항목에 대한 연구 -의미 투영도와 사용 빈도를 바탕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세경, 장경희(1990), 「국어 관용어에 관한 연구 -정서 표현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화연구』 25집, 漢陽大學校 韓國學研究所
- 전혜영(2001), 「한국어 관용 표현의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12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현용(2003), 「비언어적 행위 관련 한국어 관용 표현 교육 연구」, 『한국어교육』 1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진대연(1999), 「한국어 교재 분석의 기준: 연구와 적용」, 『國語教育學研究』 9, 국어교육학회
- 최경봉(2000), 「관용어의 구성 형식과 의미 구조」, 『한국언어문학』 45권, 한국언어문화학회
- 최혜령(2007),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 표현 지도 방안」,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재영 외 5(2005), 『한국어 교수법』, 태학사
- 홍미랑(1990), 「국어 관용어의 의미구조 연구」, 『이화교육논총』 1,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황인교(199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검토 및 방향 제시」,
『한국어 교육』 9, 국제한국어교육학회
_____(2003), 「국내·외 한국어 교재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8집,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황정아(2006), 「한국어 관용어와 관용 표현의 관계」, 『한국언어문화학』
제3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3. 국외문헌

H.Douglas Brown. 2007. Principles of Language and Teaching.

H.Douglas Brown. 2008. Teaching by Principles -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Lynn Grant & Laurie Bauer. 2004. Criteria for Re-defining Idioms: Are We Barking up the Wrong Tree?. Applied Linguistics 25-1, Oxford University Press.

Marianne Celce-Murcia, Editor. 2004.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3rd Edition

Palmer, F. R. 1976. Semantics-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 Press

Pottier Bernard. 1973. Le Langage. GEPL, Paris

Robert Paul. 1967. Petit Robert I - Dictionnaire de la Langue Francaise -S.N, Le Robert, Paris

Seidi/McMordie. 1978. English Idioms and How to Use Them. Oxford Univ Publishing Co. NY

Webster Merriam. 1975. Webster's New Collegiate Dictionary, G.&c., Merriam Co

【부 록】

교육용 관용 표현 목록

번호	관용 표현	관용 표현 의미
1	가슴이 뜨끔하다	자극을 받아 마음이 깜짝 놀라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다
2	가슴이 찡하다	감동하다
3	가시방석에 앉다	불안한 느낌이 들다
4	간이 콩알만 해지다	몹시 두려워지거나 무서워지다
5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검던 머리가 파뿌리처럼 하얗게 셀 때까지라는 뜻으로, 오래 살아 아주 늙을 때까지를 이르는 말
6	골치가 아프다	해결하기가 어렵다
7	국수를 먹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흔히 국수를 대접하는 데서, 결혼식을 올리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8	굴뚝같다	바라거나 그리워하는 마음이 몹시 간절하다
9	귀가 가렵다	남이 제 말을 한다고 느끼다
10	귀가 얇다	남의 말을 쉽게 받아들인다
11	귀에 거슬리다	순순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언짢은 느낌이 들며 기분이 상하다
12	귀에 못이 박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들어 더 이상 듣기 싫도록 되다
13	그림의 떡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이용할 수 없거나 차지할 수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
14	금강산도 식후경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라도 배가 불러야 흥이 나지 배가 고파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5	기가 막히다	일이 너무 엄청나거나 뜻밖이어서
16	김새다	(속되게) 흥이 깨지거나 맥이 빠져 싱겁게 되다

17	김칫국부터 마시다	해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미리부터 다 된 일로 알고 행동한다는 말
18	깨가 쏟아지다	몹시 아기자기하고 재미가 나다
19	꼬리에 꼬리를 물다	계속 이어지다
20	꿀 먹은 병어리	속에 있는 생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1	꿈도 못 꾸다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다
22	나이를 먹다	일정한 나이에 이르거나 나이를 더하다
23	날개가 돌치다	상품이 시세를 만나 빠른 속도로 팔려 나가다
24	낮이 뜨겁다	부끄러워하다
25	내 코가 석자	내 사정이 급하고 어려워서 남을 돌볼 여유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6	냄새를 맡다	알아채다
27	눈감아 주다	남의 잘못을 알고도 모르는 체하다
28	눈살을 찌푸리다	마음에 못마땅한 뜻을 나타내어 양미간을 찡그리다
29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매우 귀엽다
30	눈에 띄다	두드러지게 드러나다
31	눈에 불을 켜다	몹시 욕심을 내거나 관심을 기울이다
32	눈에 선하다	잊히지 않고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는 듯하다
33	눈을 감다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다
34	눈을 돌리다	관심을 돌리다
35	눈이 높다	정도 이상의 좋은 것만 찾는 버릇이 있다
36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다	몹시 애타게 오랫동안 기다리다
37	눈코 뜰 새 없다	정신 못 차리게 몹시 바쁘다
38	담을 쌓다	서로 잘 지내던 사이를 끊고 지내다

39	도마 위에 오르다	어떤 사물이 비판의 대상이 되다
40	도토리 키 재기	정도가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서로 다툼을 이르는 말
41	들통이 나다	감추어진 것이 밝혀지다
42	땀을 흘리다	힘이나 노력을 많이 들이다
43	땀을 들이다	일이나 말을 할 때에, 쉬거나 여유를 갖기 위해 서둘지 않고 한동안 가만히 있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4	마음에 들다	서로 생각이 같다
45	마음을 먹다	어떤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
46	마음이 넓다	마음 쓰는 것이 크고 너그럽다
47	마음이 통하다	서로 생각이 같아 이해가 잘되다
48	매를 들다	회초리나 몽둥이 따위로 때리다
49	머리를 식히다	흥분되거나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다
50	몸살을 앓다	마음에 근심이 있어 괴로움을 느끼다
51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다	매우 자주 빈번하게 드나들다
52	물불을 가리지 않다	위험을 무릅쓰다. 계산하지 않고 행동하다
53	뉘니 뉘니 해도	이러쿡저러쿡 말해 보아도. 또는 누가 뭐라고 해도
54	바가지 씌우다	요금이나 물건 값을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지불하여 억울한 손해를 보게 하다
55	바가지를 긁다	주로 아내가 남편에게 생활의 어려움에서 오는 불평과 잔소리를 심하게 하다
56	바가지를 쓰다	요금이나 물건 값을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지불하여 억울한 손해를 보다
57	바람을 맞다	상대가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헛걸음하다
58	바람을 피우다	한 이성에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몰래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가지다

59	발 뻗고 자다	마음 놓고 편히 자다
60	발(을) 벗고 나서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다. 전심전력하다
61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일이 몹시 절박하게 닥치다
62	발목을 잡다	1. 어떤 일에 꼭 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다. 2. 남의 어떤 약점을 잡다
63	발이 넓다	사귀어 아는 사람이 많아 활동하는 범위가 넓다
64	배가 아프다	남이 잘되어 심술이 나다
65	배꼽을 잡다	웃음을 참지 못하여 배를 움켜잡고 크게 웃다
66	비행기를 태우다	남을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높이 추어올려 주다
67	뿌리 뽑다	어떤 것이 생겨나고 자랄 수 있는 근원을 없애 버리다
68	상다리가 부러지다	상에 음식을 매우 많이 차려 놓다
69	속을 태우다	몹시 걱정이 되어 마음을 졸이다
70	손가락질을 받다	남에게 얕보이거나 비웃음을 당하다
71	손꼽아 기다리다	기대에 차 있거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날짜를 꿈으며 기다리다
72	손발이 맞다	함께 일을 하는 데에 마음이나 의견, 행동 방식 따위가 서로 맞다
73	손에 땀을 쥐다	아슬아슬하여 마음이 조마조마하도록 몹시 애달다
74	손을 놓다	일을 그만두다. 방치하다
75	손을 대다	일을 시작하다. 관여하다
76	손을 보다	1. 고치다 2. 폭행하다, 때려 주다, 버릇을 고쳐주다
77	손이 가다	노력이 들다, 일이 번거롭게 되다
78	손이 발이 되도록 빌다	허물이나 잘못을 용서하여 달라고 간절히 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9	손이 크다	1. 씹씹이가 후하고 크다 2. 수단이 좋고 많다

80	시치미를 떼다	자기가 하고도 아니한 체, 알고도 모르는 체하는 태도
81	식은 죽 먹기	남의 잘못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82	신경을 쓰다	사소한 일일까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다
83	얹느니 죽지	어떤 일을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84	애가 타다	안타깝거나 초조하다
85	애를 먹다	마음 고생하다
86	어깨가 무겁다	무거운 책임을 져서 마음에 부담이 크다
87	어처구니가 없다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는 듯하다
88	얼굴이 두껍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염치가 없다
89	우물 안의 개구리	1. 넓은 세상의 형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견식이 좁아 저만 잘난 줄로 아는 사람을 비꼬는 말
90	이 잡듯이 뒤지다	살살이 뒤지어 찾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1	입에 맞다	취향이 맞다
92	입에 침이 마르도록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거듭해서 말하다
93	입이 가볍다	사람이 하는 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4	입이 무겁다	수다스럽다
95	입이 짧다	음식을 심하게 가리거나 적게 먹다
96	자리를 잡다	일정한 지위나 공간을 차지하다
97	젓 먹은 힘까지 다 낸다	무슨 일이 몹시 힘들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8	제 눈에 안경이다	보잘 것 없는 물건이라도 제 마음에 들면 좋게 보인다는 말
99	제 살 깎아	자기가 한 일의 결과가 자신들에게 해가 됨을 이

	먹기	르는 말
100	쥐도 새도 모르게	감쪽같이 행동하거나 처리하여 아무도 그 경위나 행방을 모르게
101	찬물을 끼었다	잘 되어가고 있는 일에 뛰어들어 분위기를 흐리거 나 공연히 트집을 잡아 해살을 놓다
102	첫눈에 반하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 따위에 마음이 홀린 것 같이 쏟리다
103	코가 납작해지다	몹시 무안을 당하거나 기가 죽어 위신이 뚝 떨어 지다
104	콧대가 높다	잘난 체하고 뽐내는 태도가 있다
105	과김치가 되다	몹시 지쳐서 기운이 아주 느슨하게 되다
106	풀이 죽다	활기나 기세가 꺾이다
107	피부로 느끼다	몸소 경험하다
108	하늘의 별 따기	무엇을 얻거나 성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를 비 유적으로 이르는 말
109	한 눈 팔다	딴 짓을 하다
110	한잔사다	
111	한잔 하다	술을 마시다
112	한턱 내다	한바탕 남에게 음식을 대접하다
113	한숨을 돌리다	힘겨운 고비를 넘기고 좀 여유를 갖다
114	허리띠를 줄라매다	1. 검소한 생활을 하다 2. 마음먹은 일을 이루려고 새로운 결의와 단단한 각오로 일에 임하다

이화여자대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

초급 교재 구성 목록

급	과	주제	기능	관용 표현
2	1	첫 출근	· 소개하기 · 명명하기 · 정의 내리기 · 개인 정보 얻기 · 조언하기/ 구하기 · 어떤 일의 목적 서술하기	말이 넓다 말을 꿔다 말 벗고 나서다
2	3	도시	· 고향 소개하기 · 조언하기 · 여행 경험 말하기 · 정보 얻기	귀가 얇다 귀가 아프다 귀가 가렵다
2	5	은행과 생활	· 재능, 능력 말하기 · 일의 순서 말하기 · 환전하기 · 은행 구좌 열기 · 은행 거래 신청서 작성하기 · 현금 지급기 · 일의 순서	입이 무겁다 입에 맞다 입이 짧다
2	7	건강	· 음식의 특성 말하기 · 증상 설명하기 · 생활 습관 말하기 · 건강에 대한 조언하기/구하기	손이 크다 손이 모자라다 손을 잡다
2	9	만남	· 거절하기 · 제안하기 · 약속 확인하기 · 일기 쓰기 · 메모하기	바람을 맞다 바람을 피우다 바람을 쐬다
2	11	경험	· 역사적인 사건 말하기 · 계획 말하기 · 개인 경험에 대한 정보 얻기/정보주기 · 허락 구하기 · 조언하기	눈이 높다 눈감아 주다 눈앞이 캄캄하다

이화여자대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

중급 교재 구성 목록

급	과	주제	기능	관용 표현
4	1	아파트 생활	· 아파트 수리 요청하기 · 서술의 글을 읽고 이해하기 ·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표현 익히기 · 아파트 안내 방송 듣고 이해하기	속이 타다 바늘 가는 데 실 가다 허파에 바람들다
4	2	환불	· 환불하기 · 인과의 글을 읽고 이해하기 · 상대방 의견에 찬성하는 표현 익히기 · 라디오 방송 듣고 이해하기	죽이 맞다 척 하면 삼천리 평 구워 먹은 소식
4	3	잃어버린 비행기 표	· 비행기표 재발급받기 · 연대기적 기술의 글을 읽고 이해하기 · 상대방 의견에 반대, 반박하는 표현 익히기 · 출국 시 동물 검역에 대한 정보 얻기	과김치가 되다 도마에 오르다 해가 서쪽에서 뜨 겠다
4	4	택배	· 전화로 택배 신청하기 · 분류의 글을 읽고 이해하기 · 상대방을 설득하는 표현 익히기 · 뉴스 듣기	꼬리에 꼬리를 물 다 냄새를 맡다 발 뺀고 자다
4	5	숙소예약	· 스키 여행 숙소 예약하기 · 비교 대조의 글 읽고 이해하기 · 자신을 의견을 주장하는 표현 익히기 · 전화로 호텔방에 대한 정보 얻기	허리띠를 졸라매 다 한눈을 팔다 배꼽을 잡다
4	6	연체	· 전화 요금 연체 문의하기	말이 씨가 되다

			• 정의의 글 • 제안하기 • 전화로 휴대폰 신청하기	세월이 약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 지다
4	7	계산 실수	• 점원의 계산 실수에 대해 말하기 • 상술의 글을 읽고 이해하기 • 상대방 의견을 유보시키는 표현 익히기 • 뉴스 듣고 이해하기	으름장을 놓다 눈치코치가 없다 쥐뿔도 없다
4	8	주차	• 주차 문제 말하기 • 상술의 글 • 부연 설명하기 • 전문가와의 대담 듣기	(떡 줄 사람은 생 각도 앓는데)김칫 국부터 마시다 뒤통수를 치다 배부른 소리를 하 다
4	9	포장이 사	• 포장 이사에 대해 문의하기 • 주장의 글 읽고 이해하기 • 사회자가 토론을 이끌 때의 표현 익히기 • 광고를 듣고 정보 얻기	물거품이 되다 옷이 날개다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다
4	10	신용카 드	• 신용 카드 분실 신고하기 • 서술의 글 읽고 이해하기 • 토론된 내용을 종합하여 말 하는 표현 익히기 • 카드 서비스에 대한 정보 얻 기	침을 흘리다 주머니를 (톡톡)털 다 색안경을 끼고 보 다

ABSTRACT

A Study on Methods of Teaching for Korean Idiomatic
Expressions as a Foreign Language
-Centered on topic and connectivity with function-

Hyeong, Jae yeon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the education model for idiomatic expression in which subject and function is connected each other. For a foreigner who wants to learn Korean language, the first purpose of Korean language learning is the fluent and smooth communication. The fluent communication can be accomplished by correct and efficient use of language. In order to express efficiently what they want to say in various situation, the understanding and appropriate use of basic idiomatic expression frequently spoken by Koreans is essential.

The importance of teaching idiomatic expression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starts to appear day by day. However the current education of idiomatic expressions is not being accomplished systemically. The relative importance in idiomatic expressions of Korean teaching

materials is not so large and neither systemically configured.

Accordingly the systemic idiomatic expression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requires a new method to configure idiomatic expressions in teaching materials. Also it requires efficient education method which can utilize idiomatic expressions according to configuration of teaching materials. The education method like following has been proceeded in this study in order to secure education method for those idiomatic expressions.

In chapter I 'Introduction' propose the necessity of study, arrange and suggests some topics of study for idiomatic expressions. In chapter II,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idiomatic expressions as theoretical background is reviewed. also the studies and discussions for the categories of idiomatic expressions and language and idiom on the boundary are reviewed. Through proceeding studies, the categories of idiomatic expressions has been designated.

In chapter III, idiomatic expressions shown in Korean language teaching materials has been analysed. 27 text books from 5 organizations among college teaching materials has been analysed. The standard of analysis is based on dividing the teaching materials into internal configuration and external configuration while internal configuration is more focused. The result of analysis and problem in Korean language teaching materials has been deduced based on the above standard.

In chapter IV, the method is designed to reinforce the deduced problem. At the moment there is no standardized list of idiomatic expression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So this study has selected list of idiomatic expressions by designating primary, intermediate and high level in the standard. And based on the list of idiomatic expressions in those levels, the topic, function and idiomatic expressions has been tried to be connected each other for each level.

Finally the model of teaching elements and closely connected unit configuration model method an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has been suggested.

Through this study, learners are able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idiomatic expressions systemically and make deduction in discussions. Also we expect the effect that idiomatic expressions can be used in various context through meaning relationship of idiomatic expressions.

This study is focused again on the necessity of systematic education of idiomatic expressions, which are a bit not systemically conducte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lso topic, function and trial to connect idiomatic expressions in order to expand the width of study has its meaning.

